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세계유산 사례 비교를 통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해석

-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

Cultural Landscape Values of Traditional Villages
through Comparison of World Heritage Cases
- Focusing on Oeam Village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여 해 린

세계유산 사례 비교를 통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해석

-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여 해 린

여해린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세계유산 사례 비교를 통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해석

-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여 해 린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_____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교수)

위 원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 록

세계유산 사례 비교를 통한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해석

-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

여 해 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시작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확인, 보호 및 보존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를 별개로 여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을 개정하여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을 나타내는 문화경관을 등재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문화경관의 등재 추세는 유산의 대상이 점적인 기념물 중심의 서구 유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토착문화나 농경문화 등 경관이라는 면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로 확장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경관 유산은 중국에 5개소, 일본에 2개소가 등재된 데 반해 한국에는 아직 등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의 문화경관 연구가 국제 정세에 비해 미흡한 데에서 출발하여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 흔적’을 담은 전통마을의 문화경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여러 전통 마을 중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있으나 경관유산으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산 외암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경관적 가치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화경관의 연구사를 검토하여 문화경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살피고, 앞서 등재된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 중 마을이 주요소인 유산을 등재 신청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지의 문화경관 요소를 도출하는 요소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문화경관의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치 평가의 틀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 연구의 틀에 따라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를 형성 배경, 문화적 특성, 생활방식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역사성, 심미성, 연계성, 지속성, 정체성의 다섯 가지 가치를 통해 평가하였다.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은 조선 반가라는 역사적 배경과 풍수적 배경이 시작점이 되어 형성되었고, 구조적, 건축적 특징이 마을의 구조와 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현재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생활방식은 형성 배경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특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며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마을 구조와 건축 및 정원 양식은 마을이 가진 역사성과 심미성,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계성의 가치를 증명한다. 특히 그 역사로부터 비롯된 유교와 제사, 축제 등의 토착문화는 역사성뿐 아니라 유형과 무형의 유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계성을 뒷받침한다.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과 유산의 활용은 외암마을의 특징적인 요소인데, 국제적으로 지역민의 생활방식과 주민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시점에, 강한 주민 결속력을 가진 외암마을은 지속성과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상지 답사와 인터뷰에 의존하여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으로는 전부 설명될 수 없는 지속성, 연계성, 정체성 등과 같은 문화경관의 고유한 유·무형적 가치를 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토속적 문화 등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보며 문화경관적 가치를 보강 및 보존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세계유산, 문화경관, 전통 마을, 외암마을
학 번 : 2021-28438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3. 연구의 방법	8
2절. 선행연구 검토	10
1. 문화경관 연구 동향	10
2. 외암마을 연구 동향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문화경관의 이해	13
1. 문화경관의 등장과 개념	13
2. 문화경관 관련 국제적 논의	14
2절.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이해	18
1. 세계유산제도	18
2. 세계유산 문화경관	20

제3장 문화경관 유산 사례 분석

1절. 유사 유산 사례 선정	24
1. 비교연구의 필요성	24
2. 유사 유산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법	24
2절. 유사 유산 사례 분석	30
1. 바하우 문화경관(Wachau Cultural Landscape)	30

2. 콘소 문화경관(Konso Cultural Landscape)	33
3.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36
4. 사례 분석 결과	39
3절. 문화경관 분석의 틀	41
1. 문화경관 요소 분석의 틀	41
2. 문화경관 가치 평가의 틀	42

제4장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분석 및 가치 해석

1절. 외암마을 개요	47
1. 외암마을 개요	47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48
2절.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분석	49
1.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 도출	49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양상	63
3절.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65
1.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가치	65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의미와 한계	74

제5장 결론

1절. 연구 결과	78
1. 사례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	78
2. 연구 결과 요약	82
2절. 종합 결론	83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83
2. 제언과 향후 과제	83
[참고문헌]	85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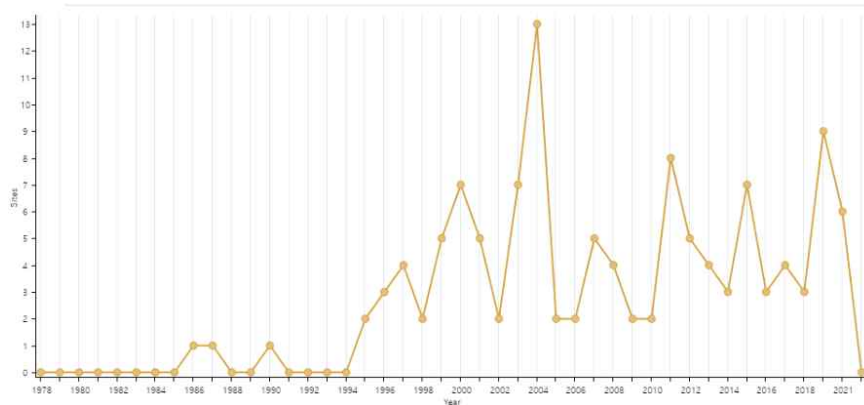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유네스코(UNESCO)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시작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확인, 보호 및 보존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고, 특히 문화유산은 그 안에서 세분된 ‘특별한 유형 유산¹⁾’으로 구분되어 등재되기도 한다.

특별한 유형 유산 중 문화경관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자연환경의 영향 아래 인간 사회와 정주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어 온 바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경관은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에 걸쳐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운영지침에서 언급하는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항목에서 단순한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넘어 상호작용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누적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17개소, 2000년대 48개소, 2010년대 53개소로 꾸준히 등재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산의 대상이 점적인 기념물 중심의 서구 유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토착 문화, 농경 문화 등 경관이라는 면적 요소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문화경관 유산은 중국에 5개소, 일본에 2개소가 등재된 데 반해 한국에는 아직 등재된 바가 없다. 지역적인 사례 발굴 시도 및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문화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거나 제시한 연구는 미미하다(임진강, 2016).

1) 문화경관, 역사도시와 도심, 운하유산, 경로유산



[그림 1] 문화경관 유산 등재 추세

(출처: World Heritage Statistics. <https://whc.unesco.org/en/list/stat>)

문화경관의 유형에는 공원이나 정원, 전통 농업 경관과 주거지, 역사 도시, 종교나 신앙 관련 경관 등이 있다. 그중 전통 주거지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동체를 지속(신상섭, 2011)해온 문화경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며 주목받는 현시점에, 여전히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공동체인 전통 마을을 문화경관으로써 해석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한국의 전통 마을은 지형과 방위 등을 따져 입지를 정하는 풍수지리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자리하였으며, 인간의 정주환경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터’로 받아들여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김훈중, 2014). 또한 마을은 유형의 기념물임과 동시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 공동체 정체성 등 무형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전통 마을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 흔적’을 담고 있어 문화경관으로 보기에 타당하다.

2023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한국의 전통 민속 마을은 9개가 있다²⁾. 그중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괴시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순천 낙안읍성은 사적으로 지정됨.

으로 등재되었으며, 아산 외암마을과 순천 낙안읍성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이 마을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기념물의 의미에 가까운 ‘문화재’로 보호받고 알려지며 마을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가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의 문화경관 연구가 국제 정세에 비해 미흡한 데에서 출발하여, 경관적 요소들이 촘촘하게 얽힌 전통 마을의 문화경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여러 전통 마을 중에서도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잠정목록에 올라있으나, 문화경관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경관유산으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판단되는 아산 외암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 마을의 문화경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간 진행된 세계유산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유무형의 유산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읽어내는 문화경관 관점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마을인 아산 외암마을을 세계유산 문화경관적 관점으로 조명함을 통해 문화경관이 문화유산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 상황(성종상, 2020)에 발맞추고, 나아가 한국의 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국제적 맥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교연구 및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경관의 등장과 발전 과정으로부터 그 원론적인 의미를 찾고,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도출한 문화경관의 가치 분석체계를 가지고 한국 전통 마을의 문화경관을 분석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또한, 정적이고 고정적인 문화재로서 유산을 보기보다 문화경관이라는 유동적이고 폭넓은 개념을 통하여 무형적인 요소까지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

전통 마을이 가진 문화경관적 가치를 읽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화경관의 등장 배경과 의미, 연구사를 살핀다. 문화경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고찰하여 문화경관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2) 유사 사례 분석

이어 앞서 등재된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를 분석한다. 세계유산의 비교 분석은 국가적·국제적 맥락에서 신청 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특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여러 속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해당 유산에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³⁾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중 외암마을과 같이 마을이 주요소거나 유산의 범위에 포함된 유산을 추리고, 유산의 대상 지역과 유산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유산을 선정한다. 선정한 유산의 등재 신청서와 자문기관 평가서 등 관련 문서를 통해 등재의 과정과 사유, 특히 문화경관으로서 해석된 내용을 살핀다.

3)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분석 및 평가

사례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및 이론을 통해 문화경관 요소 분류의 틀과 가치 평가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한 틀을 토대로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요소를 찾고, 그 가치를 해석한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요소를 비롯하여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요소를 분류하고,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연구의 흐름은 아래 [표 1]과 같다.

3) 문화재청(2011), 세계유산 등재 신청 안내서.

[표 1] 연구 흐름도

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제2장 이론적 고찰	문화경관의 등장과 개념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문헌조사
제3장 문화경관 유산 유사 사례 분석	유사 유산 사례 분석 관련 이론 검토 문화경관 분석의 틀 설정 요소 분석의 틀 가치 평가의 틀	문헌조사 비교연구
제4장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요소 및 가치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 도출 문화경관 분석 및 평가 문화경관 요소 분석 문화경관 가치 해석	문헌조사 현장답사 인터뷰
제5장 결론	사례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 연구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절 선행연구 검토

1. 문화경관 연구 동향

한국에서 경관을 문화재 및 유산으로 관리하는 개념인 ‘명승’이 200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은 2000년대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발맞추어 문화경관 관련 연구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작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로 연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크게 문화경관의 개념과 관련 법제화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경관의 분석 및 특성 파악을 통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 도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기준을 적용한 대상지의 문화경관적 가치 발굴의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

1) 개념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이광윤(2010)은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관법이 객관적인 요소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경관법의 작동을 위해서 문화경관에 대한 보존관리 및 주민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전종한(2014)은 명승의 가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유럽경관협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폈다. 두 주체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진정성 관점에서의 ‘연계 가치’, 지역 생태계 관점에서의 ‘지속성의 가치’ 경관 복지 관점에서의 ‘향유의 가치’에 따라 명승을 바라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형 및 개념과의 호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김순기(2022)는 경관유산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여러 문건을 분석하여 유산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용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관유산의 범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유산의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모호한 경계성으로 제안하

4)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이후로 1970년~1999년까지 6건, 2000년~2009년까지 60건, 2010년~2022년 65건 지정됨.

였으며, 향후 보다 포괄적인 유산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2) 문화경관의 분석 및 특성 파악을 통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 도출

문화경관을 분석하여 가치를 도출하는 해당 유형의 연구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현장답사와 고문헌 조사 등을 통해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박승자(2001)는 수지천 유역을 대상으로 성씨 집단 사회가 만드는 문화경관에 대해 파악하였고, 임의제 외(2008)은 남해안 마을 숲이 만드는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하고 가치를 도출하였다. 이제이 외(2016)는 세검정 일대에서 벌어진 행락 활동과 경관 요소를 고문헌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문화경관을 읽었다. 이영경(2019)은 월정사 보존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방문객의 가치 평가를 진행해 전통 사찰이 가진 문화경관적 가치를 연구하였고 사찰 보존지의 경관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기준을 적용한 대상지의 문화경관적 가치 발굴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201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준현(2015)는 울산 대곡천 암각화를 대상으로 세계유산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경관적 가치를 도출하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진강(2017)은 제주의 돌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대표되는 발담을 대상으로 경관 이미지 평가와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여 세계유산 문화경관적 가치를 적용하였다. 정해준(2018)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에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적용해 문화경관의 유형 중 규정된 경관으로 판단하고 그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등재를 위해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의 수립과 관련 유산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외암마을 연구 동향

외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민속마을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시작

되었던 1970년대에, 국가사업 추진과 함께 건축물의 공간 배치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주를 이루게 되었다(이창훈, 2017). 이후 2009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로 현재까지 유산적 가치, 보전과 지속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전통 마을로써 외암마을의 문화경관과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공간구조, 마을 길과 수공간 등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였다.

정겨운(2009)은 전통 마을 경관의 특성을 길 체계, 공간 배치, 생태의 세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전통 마을 경관의 의미를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정의하였다. 정동섭(2010)은 외암마을의 수공간에 집중하여 마을의 위계에 따른 수공간의 이용 체계를 연구하여 계획적 시사점을 영역성, 안전성, 쾌적성, 경관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상섭(2011)은 외암마을의 토속경관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를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외암마을의 가치 발굴을 위해 공동체 요소를 분류하고,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진 유·무형의 요소를 진정성, 보편성, 지속성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이창훈 외(2017)는 고문헌 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해 마을의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외암마을 경관의 변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광중 외(2022)는 외암마을 경관 요소 중 돌 문화에 집중하여 돌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장소와 재료, 형태, 축조 방법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문화경관의 이해

1. 문화경관의 등장과 개념

프랑스의 지리학자 Berque(1995)에 의하면, 경관문명(Landscape Civilization)을 특징짓는 네 가지 요소는 경관을 가리키는 단어, 문학과 시에서의 경관 묘사, 그림에서의 경관 표현, 정원 가꾸기의 예술로 구분된다. 문화경관의 시작점은 그중에서도 ‘그림에서의 경관 표현’, 즉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등장한 풍경화와 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11세기 송나라를 중심으로 산수화(山水畵)가 발전하였고, 서구권에서는 15~16세기 플랑드르와 이탈리아, 17세기 네덜란드, 18~19세기 미국, 프랑스 독일의 화가들을 필두로 하여 당시 유럽 전역을 풍미한 낭만주의(Romanticism)와 맞물려 풍경화(Landscape Painting)가 발달하였다. 이후 경관은 미국, 프랑스, 독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민족국가의 정체성 탐색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되며 경관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문화경관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Schlütter, 미국의 Sauer와 같은 지리학자들에 의해 쓰이고 발전되어왔다. 특히 Sauer는 1925년 ‘경관의 형태학(Morphology of Landscape)’에서 문화적 힘이 자연적 특징에 가해져 생겨나는 형태를 경관이라고 보았고, 이 과정에서 무형의 가치를 비롯하여 문학, 그림, 종교적 의례, 전통과 같은 문화적 표현을 포함하며 문화경관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문화경관을 자연환경에 인간의 활동, 즉 자연이라는 매개물(medium)에 문화적 동인(agent)이 가해져 가옥, 경작지, 도로 등의 요소가 경관이라는 공간적 틀 속에서 유기체적 총합(organic whole)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본 것이다(정해준, 2021).

2. 문화경관 관련 국제적 논의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의 등장 이후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서 인정받기까지 유네스코나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와 같은 국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에서 발표된 원칙은 비준의 필요성, 형식, 성격 등에 따라 협약, 헌장, 원칙, 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원칙의 유형에 관계없이 논의의 전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박소현 외, 2015).

유산으로서 기념물을 최초로 다룬 1931년의 아테네 헌장 이후로, 1964년 채택된 베니스 헌장은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용어를 단일 건축물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환경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1972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체결하여 세계 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문화유산 중 기념물에 건물군과 사이트까지 포함하여 이후 문화경관을 유산으로 포함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1979년 호주에서 채택된 버라 헌장에서는 장소, 문화적 중요성, 세대 간 형평성, 구조 등의 용어가 정의되며 문화경관의 개념을 폭넓게 수용했다(Goetcheus et al, 2014).

유산의 개념이 확대되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1984년 영국에서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유산의 속성이 문화유산에도 자연유산에도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992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문화경관을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으로 정의하면서 문화경관은 국제적으로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1994년 나라 문서를 통해 지역에 따른 문화와 유산의 다양성과 그 진정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문화경관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경관을 국제적 경쟁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인식하였고(성중상, 2020), 유럽경관협약을 통해 경관을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보아 일상 경관과 같이 탁월하지

않은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아시아 관점에서의 논의는 2009년 호이안 프로토콜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문서는 우주론, 풍수지리학, 애니미즘, 전통적·기술적·경제적 시스템과 같은 가치 체계와 추상적인 것들의 가치, 진화하는 경관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관리 등 아시아 문화경관의 요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2]에 정리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점적이고 정적인 유산의 의미는 점차 면적이고 살아있는 유산으로 확장되며, 문화경관의 의미 역시 단순한 인간 문화의 자연에의 영향을 넘어 문화의 장소성, 지속성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보다 포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문화경관 관련 국제적 논의

연도	문서명	발행 기관 ⁵⁾	등장 용어	문화경관에의 영향
			가치	
1931	아테네 헌장	E ⁶⁾	기념물, 사이트	기념물의 주변 지역에 대한 언급
			역사적, 미적, 과학적, 예술적	
1964	베니스 헌장	I	역사적 기념물, 사이트, 배경	사이트와 배경을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공식 수용
			진정성	
1972	세계유산협약	U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념물 외의 건물군과 사이트도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결합작품이라는 문화경관 개념 제시
			역사적, 미적, 민족적, 사회적, 인류학적 관점의 OUV	
1979	버라 헌장	I	문화적 중요성, 세대 간 형평성	장소, 공간조직, 배경, 이용, 의미, 관련 장소와 사물 등의 문화적 가치 인정
			복합공존 가치	
1982	플로렌스 헌장	I	역사 정원 건축과 원에 결합 구성체	생물(식물)에 변화 가능한 유기적 경관, 살아있는 기념물이라는 문화적 가치 부여
			역사적, 예술적	
1987	워싱턴 헌장	I	역사적 도시, 개인과 공동체 삶의 조화	기존 도시조직이나 건축에 새로운 용도나 변형 추가를 허용하면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함
			동시대 삶의 조화로운 적용과 개발	

5) 유네스코는 U, 이코모스는 I, 기타는 E로 표기함.

6)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and Specialists of Historic Buildings (역사적 기념물의 건축가와 전문가의 첫 번째 국제회의)

연도	문서명	발행 기관 ⁵⁾	등장 용어	문화경관에의 영향
			가치	
1992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U	문화경관	문화경관의 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고,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
			OUV 기준 10개	
1994	나라 문서	I	문화적 다양성, 진정성	가치 부여 항목으로서의 진정성, 유무형 유산의 가치, 문화권별로 다른 사회문화적 가치
			다양성, 유무형의 자원, 이용과 전통	
2000	유럽경관협약	E ⁷⁾	일상 경관	모든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 경관에의 총체적 접근
			개인과 사회의 복지 및 삶의 질의 핵심 요소로서의 경관	
2000	크라크푸 선언	E ⁸⁾	인공유산	공동체와 그 환경 간의 오랜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경관을 유산으로 간주
			문화적 다양성, 진정성, 완전성	
2009	호이안 프로토콜	U	위치와 환경, 형태와 디자인, 사용과 기능, 비물질적 특성	진화하는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관리, 아시아의 풍수, 전통 신앙, 기술 등 추상적 틀의 이해
			아시아적, 진정성	
2011	역사도시경관에의 권고	U	역사도시경관, 복합가치의 누적 층위	역사 도시에 복합가치 개념 및 경관적 접근을 허용
			역사 도시 보전에 사회, 문화, 경제적 과정	

(출처: Goetcheus et al, 2014 ; 성종상, 2020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7) European Union (유럽연합)

8) Kraków 2000 (크라크푸 2000 보전을 위한 국제회의)

2절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이해

1. 세계유산제도

세계유산은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발표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진 인류 전체의 유산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는 처음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었을 시에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과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자연유산으로 나뉘어있었으나, 2005년 운영지침이 수정되며 구분되어있던 두 유산의 기준이 통합되어 한 조항 내의 10개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는데, 문화유산은 평가 기준 (i)부터 (vi) 중 하나 이상, 자연유산은 (vii)부터 (x) 중 하나 이상,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각각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과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 (i)부터 (vi)를 충족하는 문화유산의 경우는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계유산은 1978년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167개국 1,157개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문화유산이 900개로 약 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현재 문화유산 13개⁹⁾, 자연유산 2개¹⁰⁾로 총 15개가 등재되어 있다.

9)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 왕릉, 종묘, 창덕궁, 한국의 서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화성

10)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한국의 갯벌

[표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기준	
문화유산	기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결작 에 해당해야 한다.
	기준 ii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 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여야 한다.
	기준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 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기준 v	하나(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 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진정성 : 모든 문화유산은 재료,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자연유산	기준 v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 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기준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 의 중요한 특징물 등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기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와 발달에서 의미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 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기준 x	과학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위협 종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 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통	완전성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보유해야 한다.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 등을 설정해야 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2 세계유산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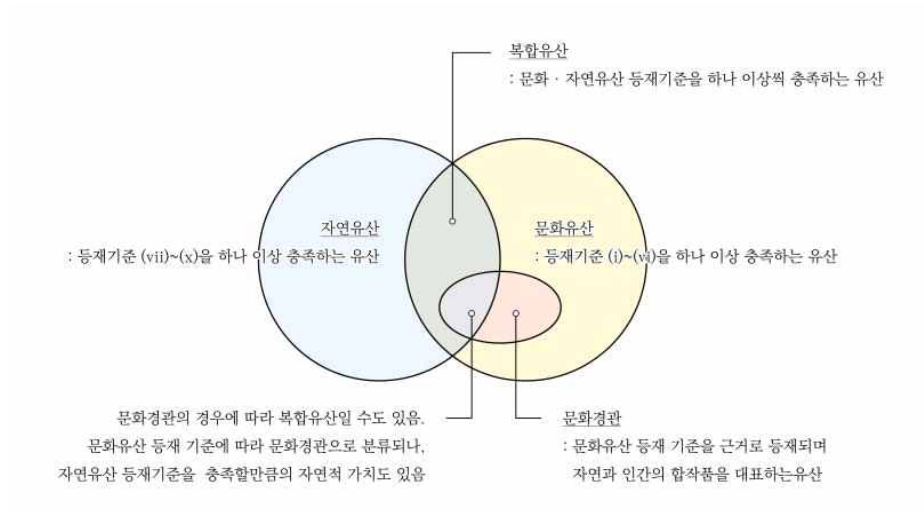
1)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개념

세계유산협약 1조는 문화유산을 기념물, 건물군, 유적지로 구분한다. 그중 유적지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만, 사실상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별개로 여겨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을 개정하여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을 나타내는 ‘문화경관’을 등재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문화경관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길고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humankind, they express a long and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¹¹⁾)”이다. 경관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문화적이지만, ‘문화’라는 용어가 추가됨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경관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까지 표현되었다(Mitchell, 2009).

문화경관은 복합유산과 혼동될 수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복합유산은 독립적인 문화유산적 가치와 자연유산적 가치를 각각 충족해야 하지만, 문화경관은 문화와 자연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 가치가 (i)부터 (vi)의 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가치가 (vii)부터 (x)의 자연유산 기준에도 부합한다면 복합유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경관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첫째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조성한 경관’, 둘째는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마지막은 ‘연상적 문화경관’이며,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한 유산이 한가지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겹치는 경우도 있다. 범주 중에서도 ‘지속경관’과 ‘연상적 경관’ 유형은 특히 이제까지의 기념물 중심 문화유산에서 볼 수 없었던 전통, 진화, 종교, 예술 등의 요소를 담고 있어 문화경관 유산이 가지는 추상적 가치에 그 차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1)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



[그림 2] 세계유산의 범주

(출처: 문화재청(역)(2021)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4] 문화경관의 유형

유형	내용		관련 문화유산 등재 기준
의도적으로 설계·조성한 경관	심미적 이유에 기인해 조성한 정원과 공원경관		(i)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사회/경제/행정/종교적 이유로 형성되었으며, 자연환경과 연관되거나 대응하여 현재 형태로 발전한 경관	a. 잔여(화석)경관: 과거 시점에 진화 과정이 중지된 경관 b. 지속경관: 전통적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진화가 진행 중인 경관	(ii), (iii), (iv), (v)
연상적 경관	자연적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종교, 예술, 문화적 연상을 근거로 하는 경관		(vi)

(출처: 유네스코(2017), Mitchell(2009)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세계유산 문화경관 등재 현황

문화경관 유산은 65개국 121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이 111개, 복합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이 10개이다. 유형별로는 의도적으로 설계·조성한 경관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관 유산은 문화경관 유산과 마찬가지로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 유산의 등재 비율이 가장 높으나,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토착문화와 생활방식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유산이 없으나, 2021년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에서 최근 등재 경향을 고려하여 문화경관 등 상대적으로 덜 등재된 형태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림 3]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등재 현황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list/>)

[표 5] 세계문화유산과 문화경관 유산의 지역별 등재 수

지역	등재유산 수(개)	비율(%)	등재유산 수(개)	비율(%)
	문화유산		문화경관 유산	
유럽, 북아메리카	469	52.1	65	53.7
아시아·태평양	195	21.7	26	21.5
아프리카	54	6.0	15	12.4
아랍	82	9.1	4	3.3
라틴, 카리브	100	11.1	11	9.1

제3장 문화경관 유산 사례 분석

1절 유사 유산 사례 선정

1. 비교연구의 필요성

세계유산의 관점으로 유산을 분석할 때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는 필수적인데, 이는 대상 유산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탁월성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임 또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안내서의 핵심 항목에서도 비교 분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비교 분석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특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여러 속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유산에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문화재청, 2011). 아직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하는 과정에 있는 문화경관 유산의 경우, 앞서 등재된 사례와의 비교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문화경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화경관 유형으로 등재된 사례를 살펴 문화경관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경관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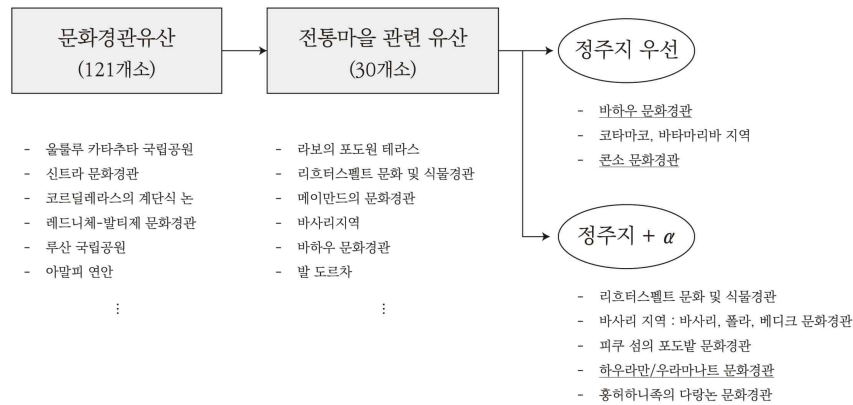
2. 유사 유산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방법

문화경관 유산의 종류에는 정원과 공원, 역사 도시, 역사 루트(route), 전통 마을과 건물군, 산업 경관, 종교 경관 등 다양한 범위의 유산이 있다. 그중 전통 마을인 외암마을과 유사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첫째, 현재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유산 121개 중 현재까지 전통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주민이 거주하는 전통 마을이 유산 범위에 포함되는 30개소를 [표 6]과 같이 선별하였다. 둘째, 전통적 생활방식 및 거주지(마을)가 유산의 주된 요소인 경우와 전통 생

활방식 및 거주지가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농업 경관, 목축업 경관 등 다른 요소가 우선적인 경우를 분류하였으며, 전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고려 대상으로 세네갈의 ‘바사리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오스트리아의 ‘바하우 문화경관,’ 토고의 ‘콘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에티오피아의 ‘콘소 문화경관,’ 포르투갈의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경관,’ 중국의 ‘홍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이란의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을 선정하였다. 그중 유산의 요소와 등재 기준, 유산의 지역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문화경관적 요소를 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유산 세 곳 ‘바하우 문화경관,’ ‘콘소 문화경관,’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을 최종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유산의 분석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관련 문서 중 등재 신청서(Nomination File)와 이코모스의 자문기관 평가서(Advisory Body Evaluation)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 유사 유산 사례 선정 과정

[표 6] 문화경관 유산 중 전통 마을이 포함되는 유산 30개 분류

	유산 명	국가	등재연도	등재기준	마을 ¹²⁾	내용(유산의 주요소)
1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스위스	2007	(iii),(iv),(v)	△	경작지와 마을
2	리호터스펠트 문화 및 식물경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7	(vi),(v)	△	목초지와 이동 방목
3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이란	2015	(v)	○	소규모 공동체 문화. 3단계의 이동 방목 생활
4	바사리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세네갈	2012	(iii),(v),(vi)	○	계단식 논, 촌락, 고고 유적지. 농·목축업, 사회적 관습, 종교적 의례 등을 통한 배치 형태
5	바하우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2000	(ii),(iv)	○	건축, 도시설계, 농지의 유기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보여줌. 2개 마을. 지속 가능한 관광 홍보
6	발 도르차	이탈리아	2004	(iv),(vi)	△	르네상스 미학을 유지 중인 7개 언덕 마을. 작은 규모의 인구 거주 중
7	베가 제도	노르웨이	2004	(v)	○	베가 섬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섬의 어촌 마을, 부두, 사육장, 경작지 등

12) 전통 마을 및 마을의 생활방식이 주된 유산인 경우 ○, 전통 마을이 유산에 포함되나 농업·목축업 경관 등 다른 요소가 우선적인 경우 △로 분류함.

	유산 명	국가	등재연도	등재기준	마을 ¹²⁾	내용(유산의 주요소)
8	비날레스 계곡	쿠바	1999	(vi)	△	전통 농업(담배) 방식과 토착 건축양식, 문화발전을 보여줌
9	아말피 연안	이탈리아	1997	(ii),(iv),(v)	△	척박한 지형과 역사적 발달의 결과로 생긴 자연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가진 문화경관
10	아시비수이트-니피사트. 이누이트의 해빙 사냥지	덴마크	2018	(v)	○	자연경관, 무형유산, 사냥과 이동 생활
11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경관	사우디아라비아	2018	(iii),(iv),(v)	○	오아시스, 숲, 운하, 정주지
12	알투 도루 포도주 산지	포르투갈	2001	(iii),(iv),(v)	△	포도주 생산 농지, 지역색이 강한 전통 건물
13	월란드 남부 농업경관	스웨덴	2000	(ii),(iv)	△	석회암 고원에서의 경작
14	잘츠카머구트지방의 할슈타트-다흐슈타인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1997	(iii),(iv)	○	소금 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변영한 마을
15	중상류 라인 계곡	독일	2002	(ii),(iv),(v)	△	라인강 협곡을 따라 작은 마을 60개의 포도밭, 성 유적 등

	유산 명	국가	등재연도	등재기준	마을 ¹²⁾	내용(유산의 주요소)
16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테네의 프로세코 언덕	이탈리아	2019	(v)	△	포도밭, 계단식 밭, 농법, 정주지와 산림
17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토고	2004	(v),(vi)	○	바타마리바족의 전통 주거지. 신앙, 의식과 관련
18	콘소 문화경관	에티오피아	2011	(iii),(v)	○	돌담 등 주민의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 가치관, 응집력, 기술적 지식
19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콜롬비아	2011	(v),(vi)	△	경작지와 마을. 사회조직 및 주택 유형에서 생산과정의 조화로운 통합
20	쿠로니아 모래톱	리투아니아, 러시아	2000	(v)	△	사구 지형의 전통 어부마을 등
21	클리마, 부르고뉴의 테루아	프랑스	2015	(iii),(v)	△	포도밭과 마을 시가지, 와인 생산 시스템
22	토케이 와인 역사·문화경관	헝가리	2002	(iii),(v)	△	포도밭 경작지와 정착지
23	파라치와 일라 그란지 - 문화와 생물 다양성	브라질	2019	(v),(x)	△	땅과 수자원을 이용한 토지의 개간, 전통 어업, 정착촌, 생물다양성

	유산 명	국가	등재연도	등재기준	마을 ¹²⁾	내용(유산의 주요소)
24	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2001	(v)	○	호수 주변의 농업 및 목축 경관, 정착지의 부분적 농촌 건축 특성, 건물 통일성 등
25	포르토베네레 및 친퀘테레와 섬들	이탈리아	1997	(ii),(iv),(v)	○	해안절벽을 따라 계단식 모양의 마을(5개)을 이루며 과수 농업
26	피레네 몽 페르뒤 산	프랑스, 스페인	1999	(iii),(iv),(v),(vii),(viii)	△	산악지역 생활방식, 마을, 농장, 고지대 목축지 등. 목축업 유지 중
27	피마치오원 아키	캐나다	2018	(iii),(vi),(ix)	△	아니쉬나베 부족의 문화적 전통. 거주지, 성소, 신앙, 생물다양성
28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경관	포르투갈	2004	(iii),(iv)	△	포도밭 경작지, 돌담 밭
29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이란	2021	(iii),(v)	○	12개 마을의 반유목 생활방식. 계단식 마을과 정원, 계절성 거주지, 전통 지식과 관습
30	홍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중국	2013	(iii),(v)	△	숲, 관개, 다랑논, 가옥의 통합된 4중 체계

2절 유사 유산 사례 분석

1. 바하우 문화경관 (Wachau Cultural Landscape)

1) 유산 개요

‘바하우 문화경관’은 2000년 등재된 오스트리아의 세계 문화경관 유산이다. 유산 면적 18,387ha 내에 수도원, 성 등의 건축 유적과 마을 등의 도시설계 흔적, 농지 이용 등이 주요 요소로 분포하며, 2,942ha의 완충구역을 가진다. 다뉴브강 하류를 따라 만들어진 마을과 농경지, 역사 유적지의 집합체로, 구석기·중세·근대를 거치며 누적된 역사적 흔적과, 건축·마을·농경지의 이용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온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준 (ii)와 (iv)를 적용하여 등재되었다.



[그림 5] 바하우 문화경관의 마을과 포도밭 경관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list/970>)

2) 요소 분석

‘바하우 문화경관’은 상호 연결되어있는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의 조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요소로는 다뉴브강과 계곡, 강변의 숲, 초원, 암석층 등이 있으며, 인공 요소로는 포도밭과 포도원, 과수원, 양조장, 건축물(유적, 수도원, 성, 농장 등)이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경관적인 아름다움과 건축물의 실용적인 필요성 사이에서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고, 그 절충안으로 자연경관과 건물 사이에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을 계획하였다. 바하우 문화경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모자이크처럼 얽혀있는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포도밭과 마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계곡을 따라 생성되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바하우 문화경관’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건축물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Mautern 이라는 마을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정착지로, 이 시기의 주택 구조와 배치, 마을 길 등 마을의 구조는 현재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이후 15, 16세기를 거치며 지어진 석조 건축물 역시 현재까지 남아있어 진정성을 강화한다. Melk Abbey로 대표되는 성과 수도원 등의 건축물은 좁은 계곡을 한꺼번에 전망할 수 있도록 조망에 유리한 계곡의 높은 지점에 세워졌다. 이러한 건축물 군은 먼 평야에서 언덕 위로 솟은 수도원이 보이는 독특한 경관을 자아낸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지역의 역사, 전설, 예술, 전통, 와인 등의 요소와 관광을 접목한 ‘Golden Wachau’ 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1904년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경제 진흥을 위한 행동 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인 포도나무 재배를 주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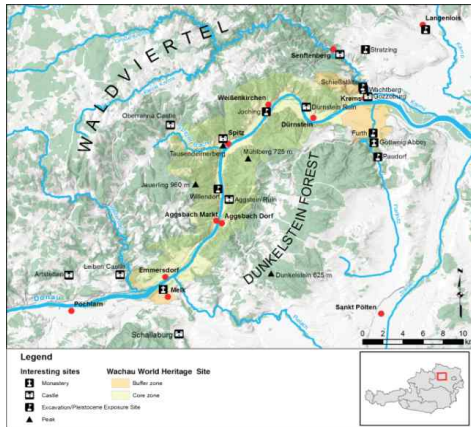
3) 관리와 지속

유산에 해당하는 토지 대부분과 기념물들(monuments)은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의 소유이다. 이들은 전통을 이어가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산의 보존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오스트리아 기념물 보호법(Austria Monument Protection Act)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Bundesdenkmalamt(Federal Office of Historic Monuments)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유산 요소에 변형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의 보호를 요청해 재정적인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산이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Niederösterreich 주에서는 홈페이지와 안내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유산 및 즐길 수 있는 활동 등을 홍보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하이킹을 통해 유산 요소를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Wachau World Heritage Trail’ 을 통해 안내한다. 유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스와 연계한 양조장과 와인을 소개하며, 양조장 및 농장에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바하우 문화경관의 유산구역
(출처: Landscapes and Landforms of Austria(2022))



[그림 7] Wachau World Heritage Trail 지도
(출처: Wachau World Heritage Trail 안내서)

2. 콘소 문화경관 (Konso Cultural Landscape)

1) 유산 개요

에티오피아의 ‘콘소 문화경관’은 2011년 등재된 세계 문화경관 유산으로, 넓은 면적의 고원에 펼쳐진 마을 경관이 특징적이다. 23,000ha에 걸친 이 문화경관 유산은 돌담, 커뮤니티의 공유 가치, 사회적 결속과 전통의 지속 등의 유산 요소를 지닌 10개의 마을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독보적인 돌의 활용은 건조하고 척박한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강한 공동체 의식 아래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아 기준 (iii)와 (v)를 적용하여 등재되었다.



[그림 8] 콘소 문화경관의 마을과 계단식 농경지 경관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list/1333>)

2) 요소 분석

‘콘소 문화경관’의 구성 요소는 돌담마을(Paletta), 초가집(Pafta), 계단식 농지, 마을 숲(Dina), 비석(Daga-diruma)과 목상(Waka), 그리고 유산구역 내 거주하는 원주민을 비롯한 그들의 전통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유산의 형성과 발전 과정의 바탕은 건조하고 척박하며 돌이 많은 환경이다. 마을의 옹벽과 계단식 농지는 현무암으로 축조되었으며, 특히 계단식 농지는 건조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한 오래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유산구역 내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10개의 독립된 마을(Paleta)이 있고, 총 44,500명 가량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방어를 위해 높은 언덕에 주로 위치하며, 농지와 접해있다. 장손이 아닌 자녀들이 본래 살던 집을 떠나 주변에 새로운 집을 짓고 벽을 쌓음에 따라 마을의 경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경될 수 있다. 대개 마을의 돌담과 농지 사이에는 Dina라는 마을 숲이 있는데, 이 숲은 땀감을 얻거나 화장실로 사용하는 등의 실용성과 사제 등을 매장하는 제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모두 갖춘 공간이다. 마을의 중심은 Mora라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등이 이뤄지며 마을에 따라 개수가 여럿인 곳도 있다. Mora가 여러 개인 경우 마을의 입구와 길은 모든 Mora를 통하여 모두 이어져 있다.

‘콘소 문화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무형 요소는 마을 공동체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문화다. 마을의 모든 구성원은 전통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공동체 시스템인 Kanta에 속하게 된다. 이 유산의 대표적인 전통은 장례 의식에서의 매장 과정과 무덤 표식이다. 영혼을 숭배하는 마을의 전통에서 비롯된 미라 제작 문화를 비롯하여, 3m 정도 높이의 현무암 비석인 Daga-hela를 세워 한 세대를 기록하거나, 고인의 모습을 모방하여 제작하는 목상 Waka나 석상 Daga-diruma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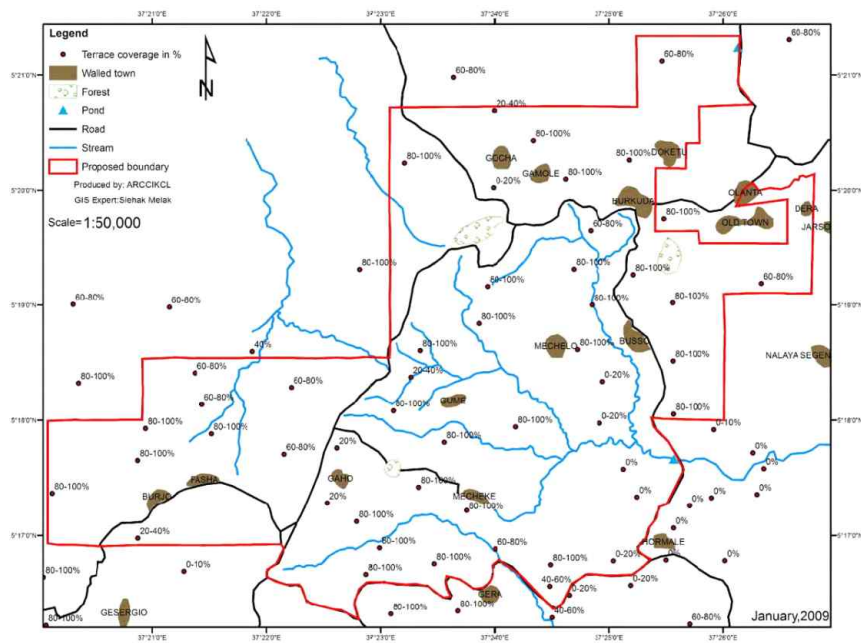
이코모스는 자문기관 평가서를 통해 이 유산이 기준 (iii)과 (v)를 만족한다고 보았고, 특히 돌담으로 둘러싸인 마을과 계단식 농지의 조합이 이 경관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3) 관리와 지속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므로 유산 내의 토지는 에티오피아 소유이지만, 토지 위에 만들어진 농경지는 해당 커뮤니티의 소유이다. 마을 주민들이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Kanta는 현재까지도 전통적 사회조직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등재 이후 유산의 문화, 역사, 언어와 문화경관에 대해 커뮤니티와

학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콘소 문화경관’은 완충구역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민들이 전통 경작 방식을 유지하면서 유산구역의 중심부 주변으로 만들어진 계단식 논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완충구역은 설정되지 않았다. 이는 Living heritage로서의 가치가 존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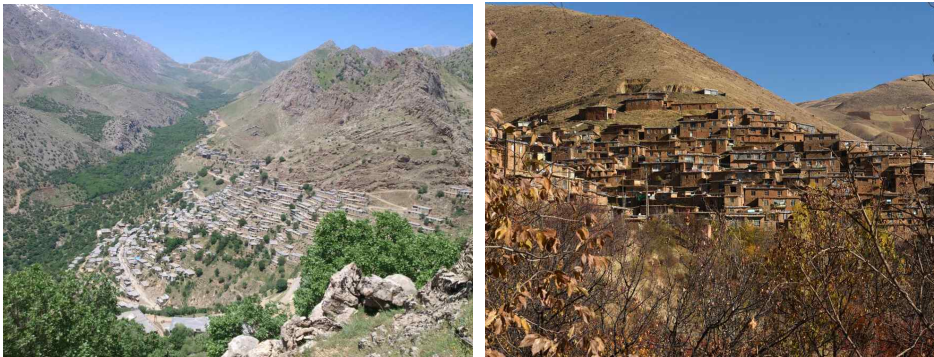


[그림 9] 완충구역이 없는 콘소 문화경관의 유산구역
(출처: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Konso Cultural Landscape(2009))

3.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1) 유산 개요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은 2021년 등재된 이란의 세계 문화경관 유산으로, 쿠르드 부족 중 하우라마 사람들이 산악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계단식 마을·정원을 비롯한 그들의 반유목 생활방식 등을 106,307ha에 걸쳐 포괄하는 유산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진화해온 반유목 목축농이라는 전통적 생활방식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준 (iii)와 (v)를 적용하여 등재되었으며, 303,623ha에 달하는 완충구역을 가진다.



[그림 10]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의 마을 경관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list/1647>)

2) 요소 분석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는 경사지에 만들어진 마을과 건축물, 계절에 따라 임시 주거지가 바뀌는 주거 방식과 그에 따른 농업 시스템을 비롯한 원주민의 생활방식 등이 있다.

이 유산은 고산지대 깊은 계곡의 험준한 지형에 위치하며, 건조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 적응하며 현재와 같은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경사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여러 수직·수평의 연결이 있는 다층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으며, 아랫집 옥상이 윗집의 마당이 되는 구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마당에

는 보통 정원이 만들어져 마을 길과 지붕, 정원으로의 연결이 마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물은 겨울철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졌으며,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과 배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주거 방식은 이 유산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유산 구역 내에 12개의 마을이 유사한 경관을 가지나, 동부의 마을에서는 여름철 정원(과수원) 경작을 위해 지내는 임시 거주지 Kapar를 찾아볼 수 있으며, 서부의 마을에서는 가축의 목초지를 위한 Hawar라는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동부의 정원(과수원)은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층마다 석재와 토양을 적절히 이용하여 효과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부 목초지의 건물에서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고 가축의 이동을 위해 투과성이 높은 건물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물리적인 유산을 비롯한 주거 방식, 농업과 수확과 관련한 의식과 축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의 등재 신청서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만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살아있고 활기찬 커뮤니티는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생활방식과 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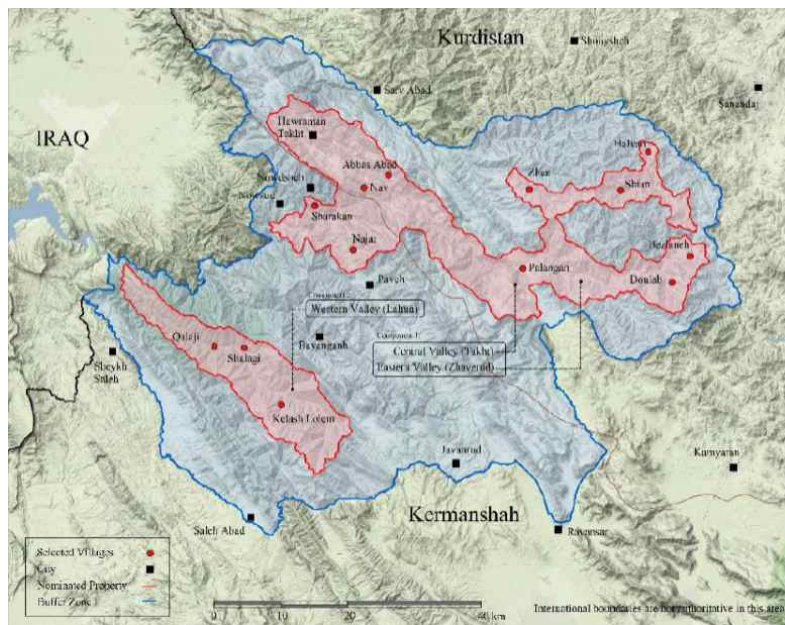
이코모스는 이를 인정하여 등재 기준 (iii), (v)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의식과 의례 등의 원주민 문화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문학 작품이나 음악 등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 관리와 지속

법률상의 관리는 IMCHTH(Iranian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Handicrafts)의 법적인 보호 아래 이루어진다.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하지만, 그보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산의 관리계획 문서에서 지역 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만큼, 유산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내의 모든 관리 활동과 프로그램은 마을의 자체 협의회, 특히 협의회장(Dehyar)을 통하여 진행된다. 회장은 중앙 관리 본부와 주민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마을을 관리하는데, 실질적 업무는 모두 의회가 진행하고 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하는 정도로 사실상 간접적인 관여만 한다. 또한 마을,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의 단기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주민이나 관련인들에게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과 협업한다.



[그림 11] 하우라마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의 유산구역

(출처: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 /Uramanat(2020))



[그림 12]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위원회 구성

(출처: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2020))

4. 사례 분석 결과

세 문화경관 유산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산의 등장 및 형성 배경, 경관적 아름다움, 역사적 맥락에서의 중요성, 건축물과 같은 유형의 요소와 농업 활동, 의례, 주민과의 협업과 같은 무형의 요소가 고려되었다. 각 유산의 등재 시기가 10년 단위로 차이가 나는데, 등재 신청서를 통해 각 유산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 등재된 바하우 문화경관의 경우 단순히 건물의 역사성, 양조장과 마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개별 건축물이나 유적에 대한 설명이 등재 신청서의 주를 이루었다. 2011년에 등재된 콘소 문화경관은 유형 유산의 나열에서 나아가 무형의 전통, 의례, 의식과 관행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특히 무형의 유산과 유형의 유산 간의 상호관계를 해당 유산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았다. 2021년에 등재된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은 가장 최근 등재된 유산으로, 콘소 문화경관에서 보이는 유·무형의 조화에서 더 나아가 현재 주민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가 가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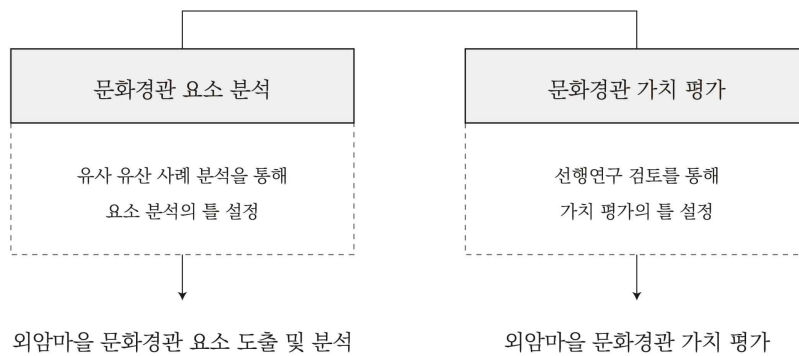
정체성 자체를 강조하였으며, 유형 유산에 있어서도 생활방식이나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마을 길과 구조 등을 중요한 요소로 기술한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세 유산 모두 현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법적 관리 아래서 보호받고 있으며, 유산의 가치를 지속해서 보존,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에 지역주민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 그 자원들의 유기적 조합, 그로부터 만들어진 지역의 생활방식으로 점차 확장되는 유산 요소는 문화경관을 이해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3절 문화경관 분석의 틀

본 연구는 크게 문화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의 요소를 도출하는 과정과 도출된 요소의 가치를 평가하는 두 과정으로 나뉜다. 앞선 유사 유산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경관 요소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이론을 참조하여 해당 요소를 평가하는 가치 평가의 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13] 문화경관 분석의 틀

1. 문화경관 요소 분석의 틀

앞선 사례 분석을 통해 대상지인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요소 분류의 틀을 [표 7]과 같이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지리적, 기후적인 유산의 형성 배경과 구조적 특징 및 종교·토착 문화 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유산에서 강조하였던 지역 공동체와 그 생활방식을 일상적 생활방식, 사회·경제 활동 방식, 축제 및 관광과 관련한 활동 방식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문화경관 요소 분석의 틀

구분	내용		비고
형성 배경	역사적 배경		무형
	지리적 배경	자연환경 (지반, 지대, 입지 등)	유·무형
		풍수지리	
기후적 배경		무형	
문화적 특성	구조적 특징	건축물 (주거 건물 등)	유형
		인공자연 (정원, 농경지 등)	
	종교·토착 문화 등		유·무형
생활방식	일상적 생활방식	전통적 생활방식	무형
		현대적 생활방식	
	사회·경제활동	공동체 사회활동	무형
		전통적 경제활동 (농업 등)	
		현대적 경제활동 (관광업 등)	
축제·관광		유·무형	

2. 문화경관 가치 평가의 틀

1) 문화경관 가치 평가의 틀 설정 과정

본 연구는 대상지의 문화경관 요소를 도출하는 데에서 나아가, 가치 분석 틀을 한국의 전통 마을에 적용하여 문화경관적 가치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경관적 요소가 가진 가치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세계유산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할 수 있는 열 가지 기준과 진정성, 완전성, 보호·관리 체제를 적용하여 분석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등재를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소이지 모든 유산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은 아니기 때문에, 등재 기준 이면에 어떤 유산적 요소가 있는지, 어떤 경관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경관의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고, 둘째, 그중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문화경관 유산에서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론을 차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분석의 틀을 완성하였다.

2) 관련 연구 및 이론 검토

경관적 요소를 분류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물리적, 가시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가지거나,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 경관 요소 분류는 건축물, 가로경관, 오픈스페이스로 경관 요소를 구분한 조선영(2022)의 연구와 같이 물리적 요소 구분에 그쳤으며, 문화경관 연구의 경우에도 토지 이용방식과 입면 구조로 분류한 임의제(2018)의 연구와 같이 가시적 경관 요소만을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영경(2019)은 상위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로 구분하여 비가시적 가치를 포함하였으나, 경관 가치의 종류를 세계유산에서 정의한 문화경관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앞선 이론 고찰에서 살핀 문화경관의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가치를 분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전종한(2014)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럽경관협약에서 공통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경관적 가치를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계 가치,’ ‘지속성의 가치,’ ‘향유의 가치’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유산의 가치 담론은 1800년대 영국의 고건물 보호 협회의 선언문을 시작으로 지속되어왔는데, 이수정(2011)은 가치 담론의 흐름을 정리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평가를 위한 가치의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역사적(정보적) 가치,’ ,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예술적 가치,’ 사회 구성원간에 공유되는 ‘감정적(상징적) 가치,’ 직·간접적인 금전적 효과를 뜻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이에 해당한다.

[표 8] 경관 가치에 대한 유네스코와 유럽경관협약의 관점

가치	내용 ¹³⁾
연계 가치	U 등재기준 (vi), 문화경관 중 결합경관
	E 경관은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필수 요소
지속성의 가치	U 운영지침 중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조
	E 사회적 필요과 경제활동, 환경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향유의 가치	U 소통을 통해 대중적 인식, 참여, 지원 증진 필요
	E 경관은 지역문화 형성에 작용하며 양질의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바람에 부응해야 함

(출처: 전종한(2014) 내용 재구성)

[표 9] 유산 가치의 측면

가치의 측면	내용
역사적(정보적) 가치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음
예술적 가치	당대의 미적 기준, 표현, 양식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함
감정적(상징적) 가치	사회 구성원에게 연대감, 정서, 감정, 정체성을 미침
사회경제적 가치	유산 자체의 금전적 가치, 문화적, 교육적 효과 등

(출처: 이수정(2011) 내용 재구성)

3) 문화경관 가치 평가의 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중 본 연구에서는 전종한과 이수정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역사성, 심미성, 지속성, 상징성, 연계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표 10]과 같이 가치 평가의 틀을 구성하였다.

13) U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E는 유럽경관협약의 내용임.

[표 10] 문화경관 가치 평가의 틀

구분	내용	관련 등재기준
역사성	시간의 누적 자체가 가진 역사성	등재 기준 (iii), (iv), 완전성
	시대를 대표하는 보편성과 대표성	
심미성	형성 당시 및 과거 특정 시기의 미적 기준	
	현대의 미적 기준	
	지역적 맥락에서의 미적 기준	
연계성	자연과 인간(문화)의 상호작용	
	전통, 사상, 예술, 문학 등 문화와의 연계	등재 기준 (vi)
	유, 무형 유산 간의 조화	-
지속성	물리적·물질적 유산의 보존	진정성, 완전성, 보존관리체계
	사회경제적 문화 방식의 보존	
	보존관리 체계와 지속가능성	
정체성	지역 정체성의 형성	-
	국가 정체성의 형성	-

역사성은 유산이 가진 시간의 누적에 따른 가치를 의미하며, ‘여러 층의 역사가 중첩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이수정, 2011)’ 를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시간의 누적 자체뿐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미성은 시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의 기준과 더불어 유산의 제작 및 형성 당시의 미적 기준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수정(2011)은 ‘건물 간의 조화나 불교 또는 유교적 사상이나 원칙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배치나 크기를 계획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성과 예술적 가치가 깊이 연결되어 있’ 으며 ‘개별 건물들이 한 장소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유기체로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존중하여야만 해당 유적지의

총체적인 예술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가와 지역에서의 미적 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지역적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계성은 문화경관의 개념인 자연과 인간(문화)의 연계로부터 도출되는 상호작용 및 세계유산 등재 기준 (vi)의 전통, 사상, 예술, 문학 등과의 연관성과 문화경관의 유형 중 '연상적 경관' 이 일컫는 종교, 예술, 문화적 연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가치이다. 나아가 앞선 사례 분석 중 콘소 문화경관의 중점이 된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 간의 조화도 연계성에 포함된다.

지속성은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진정성 및 완전성과 결을 같이한다. 현재 과거 어떤 시점의 유산이 얼마만큼 보존되고 있는지, 그 보존의 정도와 방식이 세계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보존 및 관리체계의 유무와 실행 여부와 해당 체계의 방향성이 유산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보존 및 관리되던 물리적, 물질적 요소의 보존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문화 방식의 보존과 지속까지 평가해야 한다. 특히 문화경관에 있어 문화와 일상적 경관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적으로 진정성을 논하는 흐름이 있는 그 대로의 원형에서 지역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진정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류에 맞추어 여전히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의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은 경관이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다양성을 표현하며,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유럽경관협약 5조¹⁴⁾의 의미를 담는다. 지역주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정, 연대감, 정체성과 나아가 문화경관 유산을 관통하는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의 관계는 문화경관의 가치를 포괄적이고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통한 정체성의 지속은 진정성 및 지속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14) "Recognise landscapes in law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people's surroundings, an expression of the diversity of their shar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nd a foundation of their identity."

제4장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분석 및 가치 해석

1절 외암마을 개요

1. 외암마을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의 외암마을은 약 500년 전 형성된 마을로,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있는 전통 마을이다. 2023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9개의 전통 마을 중 유일하게 호서 지역에 위치하여 호서 중부지방의 전통 마을을 대표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고택(제233호 건재고택, 제195호 참판댁)을 비롯하여 대종가와 소종가, 정려, 신도비, 정자, 선산, 서원, 풍수적 경관 등 반촌을 상징하는 다양한 경관 요소가 있다.¹⁵⁾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2011년 순천의 낙안읍성과 함께 잠정목록에 올랐다.



[그림 14] 아산 외암마을 전경

(출처: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oeamfolk/>)

15)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oeamfolk/>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외암마을은 2011년 낙안읍성과 함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등재 신청서는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전통 기법, 돌담과 인공 수로와 같은 자연환경의 활용,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무형의 가치 등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요소로 보았다. 또한 지형의 영향뿐 아니라 주산인 설화산과 남서쪽의 봉수산을 잇는 축을 고려하여 마을이 구성되었고, 조선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유교 또한 마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특히 마을을 관통하는 인공 수로와 고택에서 발견되는 조선 후기의 정원 양식을 독특한 특징적 요소로 보았다.

등재 신청서는 위 요소들에서 발견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등재 기준 (iii), (iv), (v), (vi)을 적용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편적인 전통 마을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준 (iii)과 (iv) 외에, 기준 (v)의 대표적 근거로 인공 수로의 상징적, 실용적 활용을 들었으며, 기준 (vi)의 근거로 외암마을이 배출한 예안 이씨 유학자와 그들의 사상 및 철학 등을 들었다.

한국의 전통 마을 등재 사례인 하회·양동마을의 등재 시에도 같은 등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준 (v)와 (vi)는 이코모스의 자문평가서에서 반려되어 최종 등재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유산과의 비교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국내로는 9개 민속 마을과의 비교를 통해 인공 수로와 수로를 이용한 정원의 조성을 특징적 요소로 보았으며, 국외로는 중국의 ‘남부 안후이성 고대마을-시디춘과 홍춘,’ 일본의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역사 마을,’ 베트남의 ‘호이안 고대도시’와의 비교를 진행하여 각 고대·역사 마을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2절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분석

1.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 도출

앞서 구성한 요소 분류의 틀을 적용하여 형성 배경, 문화적 특성, 생활방식의 세 분류로 외암마을 문화경관 요소를 구분 및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와 보고서 등 문헌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종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장답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문화경관적 요소를 발굴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는 마을에 대대로 거주하여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과 대외적 활동을 맡고 있는 마을 보존회장과 양반가의 종손을 주된 피면담자로 선정하였다.

1) 형성 배경

■ 역사적 배경

외암마을은 고려 시대부터 형성된 마을로 추정되나, 조선 시대 예안 이씨가의 이사종(李嗣宗)이 평택 진씨 진한평(陳漢平)의 사위가 되면서 세거하는 사건을 입향으로 보고 있다(이창훈 외, 2017).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2014)에 따르면, 이사종이 1546년 외암리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로 자손이 번성하였으며 18세기 중반 이간(李柬) 대에 이르러 예안 이씨 종족 마을이 되었고, 이후 이이병, 이성렬, 이정렬 등의 학자가 배출되며 문중의 위상을 높였다.

조선대와 일제 강점기를 지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전쟁과 농지개혁으로 구성원의 변화가 커졌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 안길 넓히기와 지붕 개량 공사를 진행하며 마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¹⁶⁾ 근현대에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비교적 잘 보존해왔기 때문에 1978년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8년 국가 지정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

16) 이창훈과 이원호(2017)는 ‘아산 외암마을 일원의 변화과정 추적을 통해 본 문화경관상’ 연구에서 마을의 변화과정을 1기 마을의 확장과 완성, 2기 토지이용의 구성인원 변화, 3기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마을의 현대화, 4기 문화재지정 이후 보존·관리 정책으로 나누어 살핌.

정되며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개량되었던 가옥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지정 사례가 두 건¹⁷⁾에 불과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되면서 2000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2004년 민속관 등이 신설되며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이를 전승하는 민속 마을의 형태를 띠는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 지리적(풍수적) 배경

외암마을은 금북정맥의 광덕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나온 설화산을 주산으로 하는 호박돌 기반암의 완만한 경사지 위에 형성되었다. 선비를 많이 배출한다는 화(火)자 혹은 품(品)자 형의 설화산을 주산으로 하며 마주 보는 안산으로는 나지막한 면잠산을 두었다. 설화산으로부터 마을 남쪽을 휘감으며 흐르는 개천(소하천)은 강당골 계곡으로부터 흐르는 외암천과 마을 동구에서 만나며, 송악저수지로부터 흘러오는 온양천과 합수한다.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동구의 외암천을 건너야만 마을로 들어설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은 풍수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풍수(風水)는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하여 길흉화복을 설명하는 용어로, 음양론과 오행설을 토대로 한다.¹⁸⁾ 외암마을 역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하는 풍수를 따져 구성되었는데, 크게 모자란 것을 채우는 비보(裨補)와 넘치는 것을 덜어내는 염승(厭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비보로는 마을 숲(송림)이 대표적이다. 외암마을은 북쪽과 서쪽으로 큰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마을 오른쪽의 산, 곧 풍수에서 말하는 우백호가 매우 허해(한필원, 2011)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화산에서 외암 선생 묘소로 이어지는 마을 숲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 말하는 ‘수구막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마을의 동구였기 때문에 마을 숲이 동구까지 이어지도록 소나무 숲을 조립하고 장승을 세웠다. 염승으로는 주산인 설화산이 가진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 마을 안 구석

17) 아산 외암마을과 고성 왕곡마을 두 마을만이 지정됨.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401>

구석으로 끌어들이는 수로의 조성을 들 수 있다.



[그림 15] 외암마을 풍수도

■ 기후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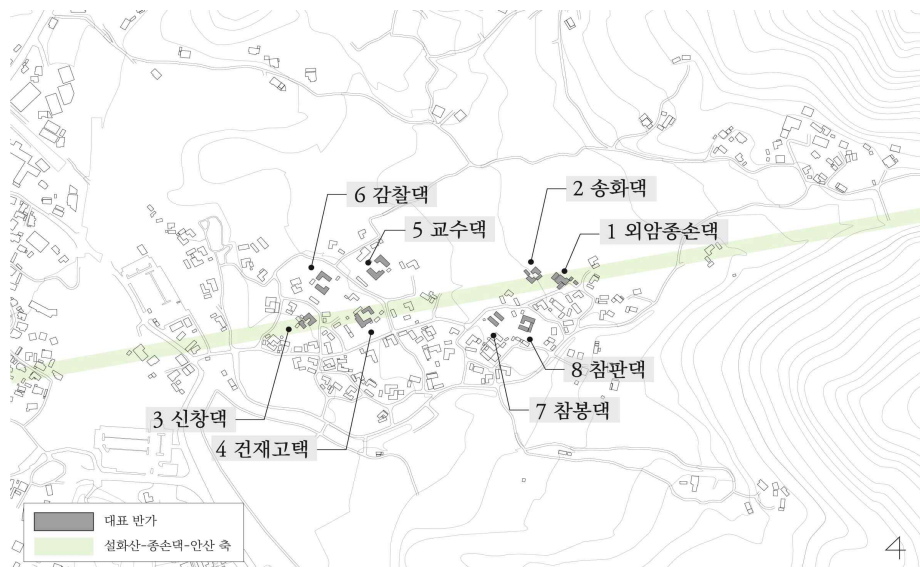
대부분의 전통 마을이 북쪽에 주산을 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가진 데 반해 외암마을은 동쪽에 설화산을 두고 형성되었다. 이는 강한 북서 계절풍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단단한 기반암과 더불어 마을이 가진 자연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특수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 문화적 특성

■ 구조적(건축적) 특성

마을의 구조적, 건축적 특성은 형성 배경 중에서도 풍수·지리적 배경과 조선 시대에 형성된 반촌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외암마을의 안길은 주산인 설화산과 안산인 면잠산과 봉수산을 잇는 축과 동일선상에 있어 풍수적 배경이 고려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을의 주도로인 안길은 마

을의 주요 중심 공간, 즉 마을 공동마당, 종가, 사당 등이 연결되어있으며, 안길에서 빠져나온 각각의 골목길들에 의해서 민가들이 연결되어있다(이정훈, 2006).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들의 위치와 형성 시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6]과 같이 축 선상에 있는 안길을 따라 가장 고지대에 있는 외암 종가와 송화택부터 저지대의 신창택과 건재고택이 형성되고, 그 이후 안길 북쪽의 교수택과 감찰택에서 남쪽의 참봉택과 참판택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을 지배한 유교 이데올로기가 마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마을이 위계를 가지고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6] 외암마을 반가의 형성 순서와 위치

외암마을은 와가와 초가가 뒤섞여있는 조선 시대 반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으로 구성된 조선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건재고택과 참판택은 개별 고택이 그 모습을 양호하게 보존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송화택, 신창택, 교수택 등의 가옥 역시 유사한 형태를 띠며, 특히 ‘ㅁ자’, ‘ㄷ자’의 구조를 가져 충청도 지역 반가의 전형¹⁹⁾이 확인된다. 마을의 건물들은 대

19) 충청의 전통 가옥 중 대표적 배치 유형은 ‘튼 ㅁ’자, ‘ㄷ’자 ‘ㅁ’자임(김도연, 2019).

체로 남서향 또는 남향을 띠는데, 이러한 좌향은 최대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어 북서 계절풍이 매서운 겨울 효율적인 난방에 기여하였다.

풍수를 고려한 구조적 특징은 앞서 언급한 마을 안길, 마을 숲과 수로에서 찾을 수 있다. 외암 이간의 묘소에서부터 이어지는 소나무 숲 능선은 풍수적으로 미약한 우백호를 보완한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마을을 둘러싸 강한 북서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요감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 수로 역시 설화산으로부터 비롯된 마을의 화기를 잠재운다는 풍수적 상징성과 더불어 생활용수 및 방화용수로서, 연못이나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수(水)로서 역할을 한다. 외암마을의 인공 수로는 다른 전통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로, 설화산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자연 하천에서 인위적인 물길을 터 마을 안길의 북쪽을 중심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주민들은 외암마을이 전소된 주택 없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수로를 꼽으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수체계는 주요 양반댁을 지나도록 안길 북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마을의 위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그림 17] 동구의 마을 숲과 장승



[그림 18] 마을 길을 따라 조성된 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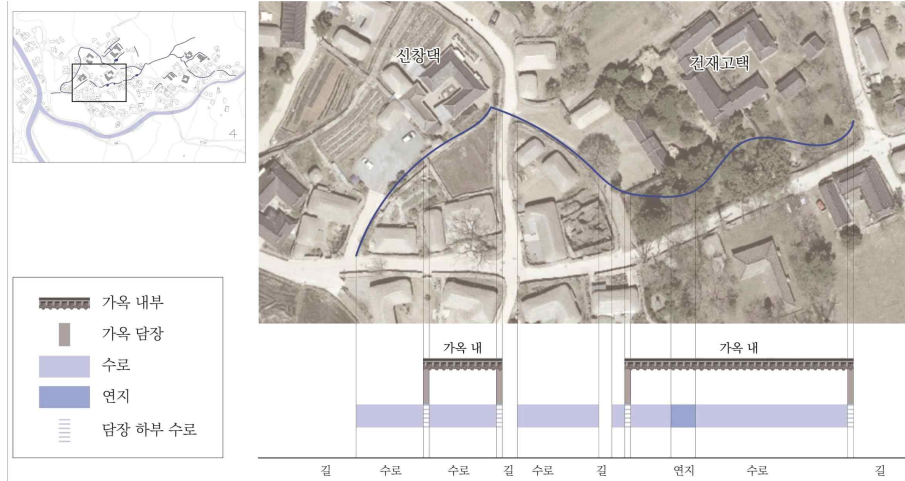


[그림 19] 외암마을의 수체계와 마을 숲
(성종상 외(2005), 정동섭(2010)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정동섭(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외암마을 수로의 상부 유입구 표고는 약 74m, 하류 지점의 표고는 약 46m로 약 28m의 표고차를 두고 흐른다. 수로의 너비와 깊이는 구간에 따라 40~60cm 사이로, 그 수치가 하류로 갈수록 커지며, 단면이 상류가 정방형에 가까운 데 반해 중·하류로 갈수록 폭이 깊이보다 길어진다. 수로 주변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이나 빨래터, 물레방아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터만이 남아있다.

수로는 [그림 20]처럼 마을 길을 따라 내려오며 반가를 중심으로 가옥 내부를 관통하여 흐르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가옥 내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로는 종손댁과 송화댁에서부터 내려와 신창댁·건재고택으로 흐르는 줄기와 이후 생긴 교수댁·감찰댁으로 흐르는 줄기로 갈라진다. 반가들의 형성 시기와 함께 이를 보면, 물을 공유하여 위에서 사용한 하수가 그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옥 간의 관계, 특히 위계질서를 철저히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옥 내로 흐르지 않는 물은 평민들에게 방화수 또는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옥 내로 흐르는 물은

앞선 용도와 더불어 조경수(水)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의 구석구석을 통하도록 조성된 수로와 정원, 숲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림 20] 가옥을 관통하며 흐르는 수로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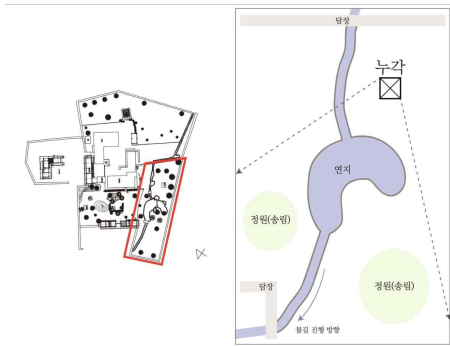
외암마을의 반가는 비교적 넓은 부지에 조성되었다. 특히 대규모 가옥은 넓은 대지에 거리를 두고 여유롭게 건물을 배치하여(김훈중, 2014) 큰 마당과 정원을 가진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건재고택과 송화택의 경우 집을 관통하는 수로를 크게 터 연못을 조성해 마당 정원의 요소로 활용했다. 정원수(樹)로는 소나무가 대표적으로, 가옥 내에 수로와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이 조성되어 독특한 경관을 만든다. 마을 터의 기반이 되었던 호박돌은 수로의 틀이 될 뿐 아니라 정원석으로 쓰였으며, 아래 [그림 21], [그림 22]와 같이 길가의 수로의 쓰인 돌보다 비교적 크고 모양이 다양한 돌이 쓰인 것이 확인되어 의도적으로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성한 정원은 [그림 23], [그림 25]에서 보이듯 별도의 누각을 세우거나 사랑채의 대청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외암마을의 선비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로를 끌어들이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정원 경관을 향유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21] 작고 일정한 길가 수로의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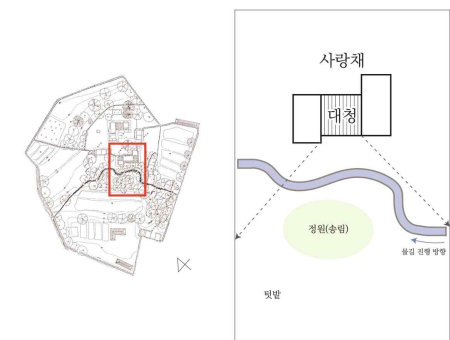
[그림 22] 다양한 크기의 정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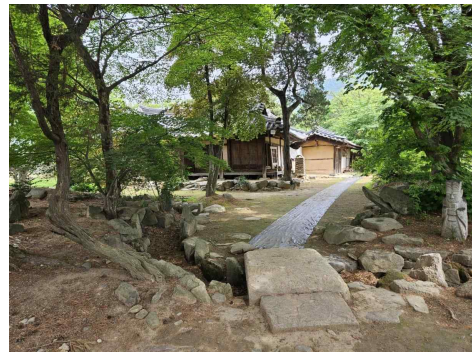
[그림 23] 건재고택 정원 모식도
(도면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rl.kr/rM4Q>)



[그림 24] 건재고택 마당의 수로와 정원



[그림 25] 송화대 정원 모식도
(도면 출처: 유병림 외(1989))



[그림 26] 송화대 마당의 수로와 정원

인공 수로와 함께 외암마을을 대표하는 독특한 특성은 돌담이다. 모두 이면 약 5.3km에 이르는 돌담은 마치 제주도의 밭담을 연상시킨다. 단단한 지반을 개척하며 들어낸 호박돌을 쌓아 밭 주변을 길게 두른 제주의 밭담과 유사하게, 외암마을 역시 집터와 농지의 터를 닦으며 나온 돌을 쌓아 담장을 둘렀다. 돌 사이를 흙 등으로 채우지 않는 허튼 쌓기 방식으로 만들고 기와를 얹지 않아 다른 전통 마을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경관을 만든다. 대부분의 전통 마을에서 집주인의 신분과 그 권세에 따라 담을 화려하고 다채롭게 한데 반해 외암마을의 돌담은 상류 주택과 하류 주택 담의 구분이 없다. 일부 상류 주택에서 기와를 얹은 담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일부 구간에만 얹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체로 마을 전체의 담이 그 재료와 구조가 같다. 외암마을 안길의 돌담은 약 1.3m~1.7m 정도의 높이로, 가로공간의 개방감과 관련이 있는 D/H의 특성을 살펴보면 1.9~2.4 정도의 범위로 나타나 대체로 개방감이 있는 내부 가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정동섭, 2010). 기와를 얹지 않고 개방감을 만들어내는 돌담의 구조와 높이는 담이 가옥의 내부와 외부를 단절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 마을의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돌담은 처음 축조 시에는 땅에 맞추어 만들어졌다가, 새마을운동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 시 땅을 양보하며 안쪽으로 들어 다시 쌓았다. 현재는 아산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장과 함께 돌담을 관리하는 담장장을 두어 유지·관리한다.

[표 11] 마을 안길의 가로구조 특성

구분	마을 안길 가로구조 특성
가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너비(D) : 2.5m~4.0m, • 높이(H) : 가로양쪽 돌담 有, 1.3~1.7m, • 개방감(D/H) : 1.9~2.4
단면도	

(출처: 정동섭(2010) 일부 수정)



[그림 27] 기와가 없고 단일 재료를 이용한 외암마을 안길 돌담
[그림 28] 기와를 얹고 축조 방식이 다양한 하회마을 토석담

■ 종교. 토착 문화적 특성

조선을 지배한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는 조선의 대표적 반촌인 외암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를 마을 고택에 붙여진 택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암마을에는 벼슬 택호가 많은데, 이상렬 가옥, 이정렬 가옥 등 주인의 이름 보다는 참판댁, 아랫참판댁, 고양(군수)댁, 송화(군수)댁, 영암(군수)댁, 옥천(군수)댁, 풍덕(군수)댁, 하동(군수)댁, 교수댁, 참봉댁, 병사댁, 진사댁, 주부댁과 같이 벼슬 택호로 불린다. 택호가 붙여진 시기와 인물을 따졌을 때 대체로 18세기 이후로 붙여진 것으로 보아 예안 이씨가 18세기 중반 문중을 형성하고 사족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중과 집안의 제사를 비롯해 개별 건물로 존재하는 가묘 역시 대표적으로 유교 사상이 불려온 문화적 특성이다. 본래 제사에는 묘제와 기제, 차례가 있는데, 기제와 차례는 각 가구가 주체가 되어 지내고, 묘제는 문중이 주체가 되어 지냈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14). 현대로 들어서며 그 규모가 작아졌으나, 외암 이간을 기리는 불천위제(不遷位祭)는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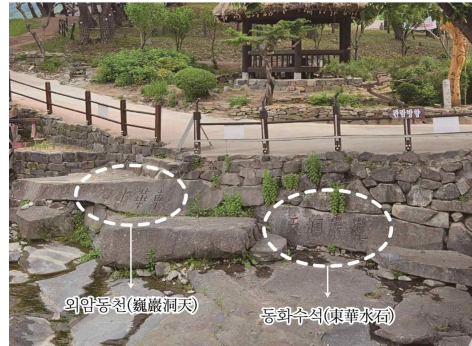
마을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석각에는 조선의 선비 문화가 투영되어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새로이 발견하거나 자신과 연관된 공간에 깊은 애정을 가지는 경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정자를 짓거나 명명(命名)하였

다. 바위에 자신의 이름이나 경관을 명명하는 등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석각 문화가 이에 해당한다. 외암마을의 선비들 역시 이러한 문화를 향유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을로 들어서기 위해 다리를 건너다보면 보이는 석각이다. 이백선과 이용찬이 각각 쓴 ‘외암동천(巍巖洞天)²⁰⁾’, ‘동화수석(東華水石)²¹⁾’,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을 주변의 강당골 바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옥렬, 이용빈, 이용현 등의 이름 또한 이에 해당한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토속 신앙 역시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외암마을은 앞서 살폈듯 풍수에 따라 마을 숲을 조성하고 그 앞에 장승을 세웠다.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매년 장승을 만들어 장승제를 지냈으며,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꼭 건너게 되는 다리에서 지내는 다리제, 마을 중앙의 노거수 앞에서 지내는 목신제(느티나무제)와 함께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림 29] 건재고택의 사당



[그림 30] 마을 입구의 석각

3) 생활방식

■ 일상적 생활방식

주민의 일상 생활방식은 전통 마을이 화석화된 부동산(property)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요소로, 문화경

20) 신선이 사는 곳 같은 아름다운 외암마을 (디지털아산문화대전. <https://url.kr/rlmp46>)

21) 돌과 물이 어우러져 신선이 사는 데처럼 아름다운 곳 (디지털아산문화대전. <https://url.kr/rlmp46>)

관 유산의 유형 중 ‘지속 경관’으로 구분되며 전통 마을의 유산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외암마을은 여전히 주민이 대를 이어 사는 마을로, 이들의 생활 자체가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던 주민들은 마을이 민속 마을로 지정되고 관광지로 개방되면서, 농업 등 기존의 생활과 민박이나 체험 같은 관광 관련 활동을 병행하는 단계에 있다. 마을 주민은 모두 마을 보존회에 소속되어 마을을 관리하고 경제적, 사회적 조직을 이루어 살아간다.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초가이영 없기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옥 보수도 주민이 직접 한다. 특히 마을 보존회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활동이 특징적인데, 전통 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 만든 프로그램인 다듬이 난타나 마을 노래 만들기 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 농촌체험·민박 운영 사무실



[그림 32] 이영 없기 준비

(출처: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oeamfolk/>)

■ 사회·경제활동

주민의 경제활동은 크게 농업과 관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를 통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주민들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농산물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떡 공장으로 납품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2023년 현재 마을의 57가구 중 44가구가 실제 거주 중이며, 약 50%에 달하는 23가구가 농가 민박을, 8가구가 체험 농가를 운영 중이다. 민박 운영은 개별 가구가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보

존회에 내는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 역시 개별 가구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진다.

■ 축제 및 관광

보존회를 통한 주민들의 활동으로는 제의와 축제 등의 행사가 대표적이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제의인 장승제, 다리제, 목신제(느티나무제)는 주민들끼리 지내던 제사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축제에 편입시켜 2003년부터 ‘짚풀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짚풀문화제’는 매년 10월 진행되는 정기 행사로, 외암 이간의 생애를 주제로 하여 열린다. 관혼상제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짚풀 공예 체험이나 줄타기, 사물놀이 공연 외에 전통 혼례, 과거시험 재현, 전통 상례 재현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그 외에도 2022년과 2023년 진행된 ‘아산 문화재 야행’은 해설사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선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일자리와 비일상적 경험을 주고, 관광객에게는 전형적이지 않고 특색 있는 방식으로 마을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림 33 장승제]

(출처: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www.oeam.co.kr/>)



[그림 34] 짚풀문화제 중 과거시험 재현

(출처: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www.oeam.co.kr/>)

외암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경관적 요소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 [표 12], [그림 35]와 같다.

[표 12]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

1) 형성 배경		2) 문화적 특성	
역사적 배경	조선의 반촌, 외암 이간(李柬)을 중심으로 하는 문중	구조적(건축적) 특징	종교·토착문화
지리(풍수)적 배경	설화산과 외암천, 호박돌 기반암, 비보와	반촌의 구조적 특성, 충청 지역의 대표적 가옥 구조	유교(택호, 가묘와 제사), 반석, 석각
기후적 배경	염승, 북서 계절풍	마을 숲, 인공 수로, 정원, 돌담	장승제, 목신제, 다리제



3) 생활방식	
일상적 생활방식	마을 관리, 가옥 보수, 공동체 문화 활동
사회·경제활동	농업(전통적 생활방식) + 체험 및 관광(현대적 생활방식), 영농조합, 자급자족의 생활 형태
축제·관광	제의, 축제 진행 (짚풀문화제, 문화제야행 등)



[그림 35]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 지도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양상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은 조선 반가라는 역사적 배경과 풍수적 배경이 시작점이 되어 형성되었다. 특히, 마을이라는 대상지의 특성상 형성된 문화적 특성 중에서도 구조적, 건축적 특징이 마을의 구조와 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구조적 특징과 연계되는 종교 및 토착문화 또한 발견되는데,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반촌의 구조와 고택의 사당, 사당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 그리고 지리(풍수)적 배경으로부터 형성된 마을 숲과 수로,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목신제와 다리제의 연계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을 문화경관으로 바라볼 때 현재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생활방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경관의 유형 중 ‘지속 경관’이 이를 방증하며, 앞서 살핀 유사 유산 사례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고 유지되는 현재의 생활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암마을의 생활방식은 형성 배경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특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며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보존회에 소속되어 마을의 전통적 고유 가치를 지키고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가꾸기나 초가이영 없기 등 마을 경관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 노래 만들기나 다듬이 난타 팀을 구성하는 등 마을이 가진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한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전통적 생활방식인 농업과 현대적 생활방식인 체험, 민박 등의 관광업을 병행하는 단계에 있다. 농업은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기 보다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수의 가구가 관광업에 종사하여 대체로 관광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절대적이다. 일부 농업 생산물은 마을 바깥에서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떡 공장(느티나무 떡 공장)에 납품하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제조업이 불가하므로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는 구조이다. 보존회 측은 일부 구역을 공동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축제 및 행사 진행 역시 주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큰 행사인 짚풀문화제에 참여하며, 축제를 통해 전통적인 토착문화로부터 비롯된 제의 등을 재연함으로써 마을의 무형 유산을 전승한다.

외암마을은 전통 마을 중에서는 젊은 편인데, 중장년층의 자녀 세대가 마을 근처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고, 주말이나 영농기에 주민 활동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은퇴 후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이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농조합의 활동과 같은 마을 공동체의 활력있는 생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절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

1.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가치

1) 역사성

외암마을은 1500년대 진한평(陳漢平)이 정착한 후 사위 이사종(李嗣宗)으로부터 대가 내려온 종족 마을로, 본격적으로 마을 구조가 형성된 조선 시대로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층위를 가지고 있어 마을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외암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인물인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외암’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간 대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는데, 지명을 호로 삼으며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을 보임과 동시에, 외암마을에 여러 명문대가들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모두 외출(外出)로써 외암리의 명실상부한 주인은 예안 이씨임을 선언하였다(윤종빈, 2009). 그는 호남 지역에서 학문을 펼치다 고향 외암리로 돌아와 후진양성을 도모하고 외암기(巍巖記)를 지어 그가 사랑한 고향의 산천을 기록했다.

마을의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외암마을은 한 마을에 전통적인 상류·중류·서민 가옥이 함께 남아있어 마을의 형성이나 전통 가옥의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다²²⁾. 여러 가옥의 군집으로서 조선 시대 반촌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며, 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외암마을의 대표 가옥 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참판댁과 같이 ‘튼 ㅁ’자와 ‘ㄷ’자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 호서 지역의 전통적 정주지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진다. 잠정 목록 등재 신청서에서 언급하듯 조선 후기의 정원 양식 또한 찾을 수 있는데, 건재고택 등에서 볼 수 있는 정원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그 형태가 완성되어 역사적 흐름이 담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역사성을 가진다.

2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url.kr/dc8gqb>



[그림 36] 'ㅌㅍㅎ' 자의 참판 큰댁 배치도
(도면 출처: 한옥기술개발 R&D)



[그림 37] 건재고택의 정원

2) 심미성

과거 마을이 가진 심미성은 외암 이간이 남긴 외암기(巍巖記)의 ‘외암오산(巍巖五山)’, ‘외암오수(巍巖五水)’를 통해 나타나는 주변 자연환경의 예찬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간은 특히 외암오산 중 설아산(雪峩山:설화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하며 빼어난 경치를 소개하였다.

“설아산의 한 기슭은 광덕산으로부터 나와 북쪽으로 잇달아 뻗어있다. 그 가운데 문득 오봉이 다른 봉우리보다 높이 솟아올라 있는데 그것이 곧 외암리 진악이요 그 서쪽으로 비탈진 곳으로 물이 흐르고 나의 오래된 집이 실제로 그 위에 있었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터전을 굳게 잡았다. 가운데 봉우리가 제일 높는데, 그 산세가 앞뒤로 다 보좌하고 있는 모양이 서로 금령 사이로 은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손가락을 곱으면서 한 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²³⁾

외암마을 동구 반석에 이백선과 이용찬이 각각 쓴 ‘외암동천(巍巖洞天)’, ‘동화수석(東華水石)’은 190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석각 역시 신선이 사는 곳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외암리의 아름다

23) 李柬(이간), 『巍巖記(외암기)』(1723), 윤종빈(2009) 재인용

움을 기록한 것으로, 과거 인물들이 표현한 심미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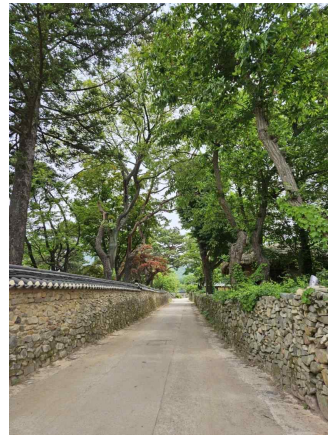
현대의 마을 경관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 아래 보존되어 옛 경관을 유지하는 토속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설화산의 능선과 초가의 곡선이 어우러지며, 지역의 자연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지은 가옥과 돌담 역시 통일성 있는 경관을 만든다. 마을의 입구에서 안길, 안길에서 골목길로 이어지는 길의 구조는 길폭을 점차 좁아지게 하며, 길폭이 좁아짐과 동시에 양쪽의 담장이 함께 낮아져 부드럽게 감싸는 위요감을 준다. 좁은 길에서 다시 마을을 감싸는 바깥길로 나왔을 때 마주하게 되는 설화산과 탁 트인 마을 경관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마을을 돌아보며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중 하나이다.

반면, 마을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심미성과는 달리, [그림 40]에서 볼 수 있듯이 주차장에서 입구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느껴지는 어수선향은 미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화산과 마을 경관보다 최근 신설된 민속마을 체험장과 민속관을 먼저 마주하게 되는 구조와, 좁은 도로에 이동하는 관광객과 차량, 양쪽의 식당이 혼재하여 만드는 정돈되지 못한 경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초가와 설화산

(출처: 외암마을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oeamfolk/>)



[그림 39] 마을 안길과 돌담



[그림 40] 외암마을 진입 시퀀스
(사진 출처: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3) 연계성

문화경관에서의 연계는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문화와 경관 간의 관계, 유·무형 유산 간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외암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풍수와 지리적 여건으로 형성된 마을 숲, 수로, 정원, 돌담, 마을 길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특히 [그림 19]에서 보이듯 수로 주변으로 배치된 공동우물과 빨래터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을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종상과 이은석(2005)은 특히 빨래터에 주목했는데, 중앙 빨래터는 상류 주택에 둘러싸여 있고 터가 넓은 것으로 미루어 상류층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여러 정보를 교환했을 것으로 추측했고, 하천변의 빨래터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문화경관 유산의 대표적 유형인 만큼 중요한 인간과 자연의 연계 요소이다. 외암마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상류 주택의 정원은 지역의 기반암과 풍수적 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를 활용한 수준 높은 문화경관적 가치를 가진다.

더불어, 석각이나 가택 내부의 가묘와 같은 유교와 조선의 선비 문화가 만 들어낸 토속경관과, 이간이라는 인물과 연계되어 보존되고 있는 목관 등의 기록물 및 이간이 마을의 경관을 기록한 외암기(巍巖記), 이간을 기리는 불천위 제의 지속 역시 마을이 가진 연계성의 가치를 증명한다. 특히 문화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유형의 구조물과 무형의 제의 간의 관계인 ‘수로, 다리과 다리제’, ‘마을 숲, 장승, 느티나무와 장승제, 목신제’, ‘사당, 가묘와 제사’, ‘이간과 불천위제, 짚풀문화제’와 같은 연관관계는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현재 외암마을은 무형의 제의나 행사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경관 요소를 이루고 있으나, 외암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관적 요소나 마을의 대표적 인물과 관련한 문학적 요소는 중요하게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외암천을 거슬러 광덕산을 올라가다 보면 강당리의 강당골과 강당사가 있는데, 지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간이 생전 관선재(觀善齋)라는 강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 사후 봉안되어 서원으로 역할한 곳이다. 이후 서원 철폐령으로 사찰로 위장한 이래 현재 강당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마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비해 관련 설명이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을 보완한다면 보다 높은 연계성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관선재(현 강당사)와 이간 문집 판각
(출처: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2014))

4) 지속성

외암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보호법을 통해 보존·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하는 법률이며²⁴⁾, 민속 마을은 그중에서도 민속문화재에 해당한다. 특히 외암마을이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지정하여 유산을 보호하게 되어있다.²⁵⁾ 외암마을의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은 아래 [그림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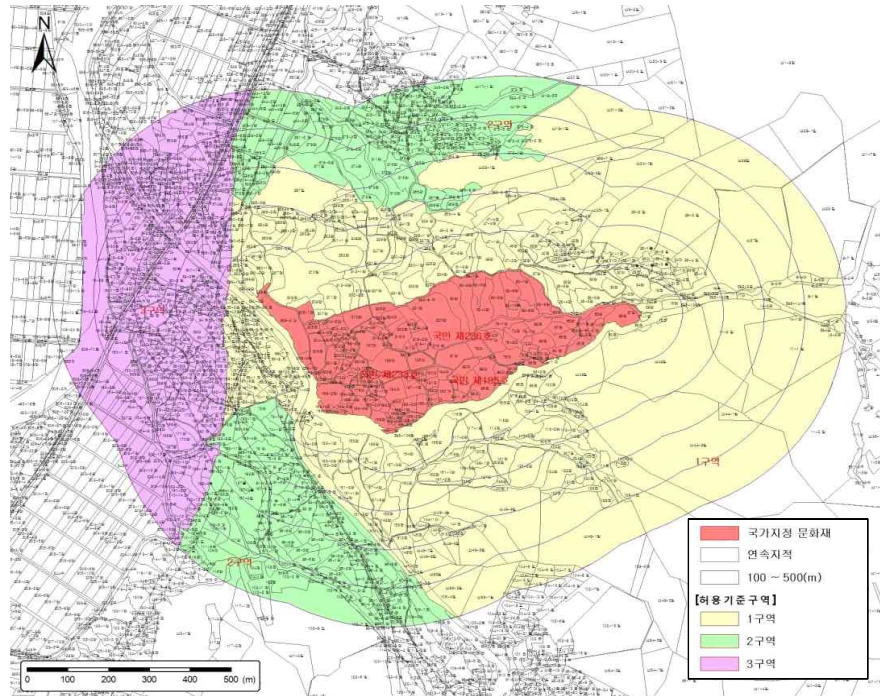


그림 42 외암마을 허용기준

(출처: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

24) 「문화재보호법」 제2조

25) 「문화재보호법」 제13조

허용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지붕 경사도, 유해시설 등을 심의받아야 하므로 민속 마을 자체의 내부 경관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앞서 서술했듯 진입로가 잘 관리되지 않아 경관의 미적 가치를 저해하며, 외암기(巍巖記)에서 발견할 수 있고 풍수적 의미가 큰 설화산과 면잠산을 잇는 축이나 강당골과 강당사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별 가옥의 형태와 양식뿐 아니라 풍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설화산과 수로,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는 옛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기를 거치며 많은 가옥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형태를 변경했으나, 민속 마을의 지정 이후 기존 가옥의 원형 고증을 통해 초가와 와가로 재변경하였다. 현재까지도 초가장을 두고 관리하여 매해 수리 및 보수가 진행되어도 그 방식과 재료가 옛것과 같아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마을의 하천과 수로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았는데, 현재는 물이 말라 적은 양이 흐르거나 마른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하천이 겪고 있는 건천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원지로부터의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외암마을은 많은 가구에서 (텃)밭을 일구어 자급자족하며, 일부 가구에서는 논농사를 겸한다. 와가와 초가,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농경지까지가 전통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관 요소인 만큼 농경지와 농업 활동의 지속성은 전통 마을 지속성의 필수적 요소이다. 전통 방식으로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과, 수확물을 떡 공장에 납품하여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 보존회 측의 노력이 더해져 마을 경관의 지속성의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지속성의 가치 보전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경관협약에서도 현주 인구의 경제활동과 같은 지역 사회의 지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외암마을의 사회경제적 문화의 지속성은 지역 공동체인 마을 보존회를 중심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행정 중심의 천편일률적 공동체 활동 이상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마을 보존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개인 사업보다는 공동체 사업 쪽으로 기획을 해요. ...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감으로써 주민들도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도 편해져요.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고, 일거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지. 민속 마을이 공동체가 안 되면은, 그냥 행정은 행정대로 관리만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그냥 사는, 그런 과정밖에는 안 돼요. ... 스스로 마을이 가진 것들을 활용해서 수입이 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한 거죠.”

(보존회장 이00)

마을의 결속력 있는 공동체는 주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며 전통 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가능케 한다. 마을의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농가 민박 체험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가꾸고 가옥을 보수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오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두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의와 축제 역시 지속성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문중의 제사를 비롯한 마을의 특징적인 목신제, 장승제 같은 제의는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통해 재현되고 보전된다.

이러한 마을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은 내·외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든다. 외부적으로는 지속해서 관광 상품을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유입되게 하며, 내부적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을 불러일으킨다. 외암마을은 청·장년층의 자녀 세대가 마을 주변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주말이나 영농기에 마을 활동을 하러 방문하고, 은퇴 후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농촌 마을이 유지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고, 가업을 이어야 하고, 자손들이 들어와 살아야 해요. 내 자식부터 올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하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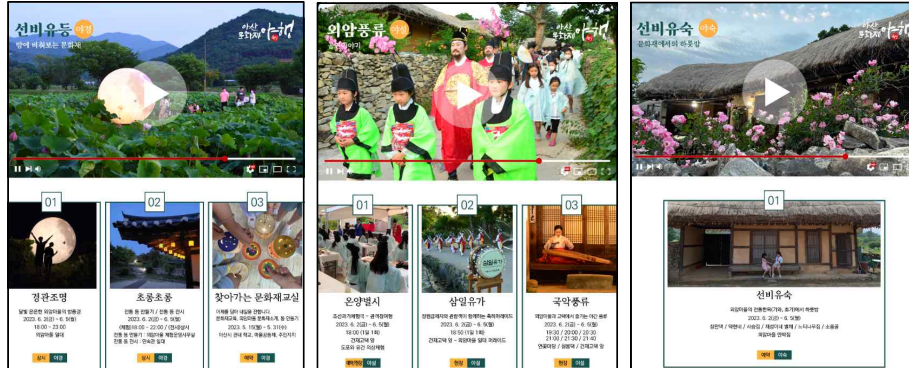
지. ... 귀촌을 하려면 복지가 돼야 하고, 환경이 좋아야 하고,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소득이 제일 중요하지. ... 나가 있던 자녀들이 보기에 마을에서 영농조합 같은 사업을 계속하니까, 소득 면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거야.”

(보존회장 이00)

5) 정체성(상징성)

문화경관을 만드는 요소들은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곧 고유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지속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물리적으로 특징적인 요소인 수로와 정원, 돌담으로부터 형성된 독자적인 경관과 외암마을만의 지리적 특성으로 생긴 다리재, 장승제와 같은 무형의 요소, 그리고 외암 이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특성으로 생긴 외암마을만의 축제는 모두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 요소로 작용한다. 외암마을의 주민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마을의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비롯하여, 여러 공동체 활동을 통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이런 의식은 다시 일상 경관을 형성하며 전통 마을이 가진 문화경관이 지속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전통 마을은 국가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요소로도 작용한다. 외암마을의 관광 동기와 목적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에게 통용되는 고향, 시골 등 돌아갈 곳이라는 인식과 우리 것, 배워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경표(2020)의 연구에서 외암마을 관광객의 관광 동기는 ‘전통문화체험’이 36.0%로 가장 높았고, ‘자녀 교육’ 역시 12.2%로 높은 순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산 문화재 야행’ 행사에 2022년 관광객 6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2023년 모든 프로그램이 조기 매진되는 등 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 구성원들이 전통 마을을 향유하는 데 관심이 높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2023년 아산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중 일부

(출처: 아산문화재야행 홈페이지. <http://www.asannight.com/>)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의미와 한계

1)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의미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와 그에 해당하는 요소의 관계는 아래 [표 13]과 같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마을 구조와 건축 및 정원 양식은 마을이 가진 역사성과 심미성,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계성의 가치를 증명한다. 특히 그 역사로부터 비롯된 유교와 제사, 축제 등의 토착문화는 역사성뿐 아니라 유형과 무형의 유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계성을 뒷받침한다.

일상적, 사회·경제적, 축제·관광 등의 생활방식은 모두 지속성과 정체성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는 위의 형성 배경과 문화적 특성이 가진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법제적 요소뿐 아니라 대대로 거주하는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노력이 그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문화경관적 의미에 큰 역할을 한다.

문화경관의 가치 중 지속성의 가치에서 찾아본 것과 같이 외암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보존회 차원의 노력과 주민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옛 모습을 유지하며 적절히 현대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는 외암마을은 현대화가 진행되며 단순히 외관만이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갖추는 ‘민속촌 화’가 되어갈 수 있는 전통 마을과는 다르다.

세계유산협약이 추구하는 5가지 전략 목표인 ‘5Cs’ 중 마지막으로 추가된 ‘지역 사회(Community)’²⁶⁾는 지역민들이 유산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사회를 배제하고 만들어진 보존 전략은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략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보존에 있어 유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유산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동향이 유·무형 유산 이상의 의미를 요구하고, 특히 거주지인 경우 지역민의 생활방식과 주민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시점에, 강한 주민 결속력을 가진 외암마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표 13] 외암마을의 문화경관 요소와 가치의 관계

요소 분석의 틀		가치 분석의 틀				
		역사성	심미성	연계성	지속성	정체성
형성 배경	역사적 배경	●				
	지리 및 기후적 배경		●			
문화적 특성	구조적(건축적) 특징	●	●	●		
	종교·토착 문화	●		●		●
생활방식	일상적 생활방식				●	●
	사회·경제활동				●	●
	축제·관광				●	●

2) 외암마을 문화경관의 한계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성의 관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앞으로 외암마을이 지속해서 아름다운 전통 마을로 발전해가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 먼저 지속성 가치 보완의 일환으로 농업방식의 진정성을

26) 5C인 Credibility(신뢰성), Conservation(보존), Capacity-building(역량강화), Communication(소통), Community(지역 사회) 중 앞의 네 요소는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마지막 요소인 Community는 2007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31번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됨.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암마을은 기계화된 현대의 농업방식을 따른다. 기계화된 논농사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굶은 농사일을 대신하기에 고령의 주민도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화경관적 진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통 방식의 농업, 친환경 농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의 노력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날 전망에 있는 외암마을의 경우 청산도 구들장 논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모내기, 논 생태 조사, 수확 체험 등을 운영하여 농업 활동의 진정성 보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물이 마른 수로를 복원하기 위한 수체계 분석이 필요하다. 보존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물이 마른 원인 중 하나로 낙엽을 뽑았다. 마을로 흐르는 자연 하천과 인공 수로의 수원지가 되는 설화산의 주기적인 간벌과 낙엽 정리 등 수원지로부터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유지·관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계성의 차원에서 외암 이간과 관련한 문학적, 경관적 요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간 선생을 모시던 사당은 철폐 위기에 놓이자 그 위치를 마을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강당골이라는 곳으로 옮겨 사찰로 위장했는데, 현재 강당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으며 이간 문집 판각에 이간의 기록물이 남아있다. 강당골은 이간의 ‘외암기(巍巖記)’ 에도 등장하여 마을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경관 요소에 해당한다. 강당골을 비롯하여 주변 자연의 경관을 노래한 ‘외암오산(巍巖五山)’, ‘외암오수(巍巖五水)’ 에 등장하는 주변 지명과 위치, 현재 마을과의 관계 등 문학적 요소와 경관 사이 관계의 보완은 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암마을의 주민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단합하여 비교적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으나, 주민들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사 시 일부 주민에게서 터져 나오는 불만 역시 들을 수 있었다.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과한 제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되고 나서 불만은 말도 못 했어. ... 증축, 개축, 신축할 때마다 세금 떼지, 조금이라도 고치면 고발 들어오지. ... 온갖 제제들이 제일 불편해요.”

(5대손 마을 주민 이00)

전통 방식으로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택의 보수와 관리에 대한 민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진정성의 개념이 ‘원형 그대로의 보존’에서 ‘변화하는 유산’, ‘의미의 보전’으로 점차 변하는 현시점에,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 하기 위한 적정선의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 결론

1절 연구 결과

1. 사례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

앞서 살핀 외암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 사례와 비교하면 아래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성에 있어서 외암마을은 유사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한국 전통 마을의 보편적인 사례이면서도 우수한 가치를 가진 탁월성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미성의 측면에서는 모든 유산이 마을의 구조적인 양식과 재료로부터 오는 통일성과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가진다. 외암마을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부분은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인데, 한국의 풍류 문화에서 비롯된 반석·석각 및 외암 이간이 작성한 고문헌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당대의 미적 가치, 특히 경관적 아름다움을 그린 기록은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문화경관 유산 사례를 비교한 만큼 연계성의 가치는 모든 유산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유사 사례에서는 농경 혹은 목축이라는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다. 이와 비교했을 때,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외암마을이 연계성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방식의 진정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 수로와 돌담, 이들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과 같이 자연을 일부 변형시켜 활용한 점은 세계유산 사례와 견주었을 때도 특징적인 요소로 보인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모든 유산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콘소 문화경관을 제외한 유산들은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유산과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있다. 외암마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서원’과 같은 국내 유산 등재 사례를 살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세계유산의 완충구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완충구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유산구역의 설정을 통한 경관의 보존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노력과 유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매우 의의가 있다. 보존회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 활동은 내·외부적으로 마을을 지속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외암마을의 보존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은 강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의 지역 공동체 활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증명한다. 외부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적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을에 대한 관심과 방문 요인이 되므로 지속성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마을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치를 종합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적용하면,

(vi)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

(v) :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

(vi)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그리고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되는 사례

의 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측면에서도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합한다 판단된다.

[표 14] 유사 유산과 외암마을 가치 비교

	바하우 문화경관	콘소 문화경관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아산 외암마을	비고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물 •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여 년 전 형성된 마을 • 지구상 마지막 거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 등 선사시대 유적 및 중세 이슬람 시대의 성과 요새 • 파르티아 시대, 이슬람 왕조 시대에 생겨난 전통 마을과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년대 형성 • 근현대를 거치며 생긴 구조의 변화 • 조선대 가옥과 정원, 충청 지역 가옥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유산들에 비해 짧은 역사 • <u>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는 보편탁월성</u>
심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경관’ 개념의 등장으로 만들어진 자연과 건물의 조화 • 높은 곳에서 전망하는 경관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게 펼쳐진 계단식 농경지로부터 오는 개방감 • 석재 이용으로부터 느껴지는 통일감 • 전통 건축에서 비롯된 토속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유사한 형태와 재료에서 비롯되는 통일감 • 정원과 과수원 등 인공자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재료와 구조 등에서 비롯되는 토속경관 •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재료와 전통 축조 방식에서 오는 토속적 아름다움 • 한국의 <u>풍류 문화에서 비롯된 과거의 심미성</u>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인공 구조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요건으로부터 비롯된 자연환경과 인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박한 자연에의 적응을 위해 발달한 농경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적 요인으로 형성된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인공 요소가 어우러진다는 공통점

	바하우 문화경관	콘소 문화경관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아산 외암마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밭 등 농경 유산 18, 19세기 여행기 및 그림에 나타나는 결합경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지의 상호작용 마을 숲과 제사, 비석과 장례문화 등 유무형 유산 간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 시스템과 관련한 의식과 축제, 문학 작품과 음악 등 결합경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기록물 등 결합경관 요소 무형의 축제나 제사 등과 유형 유산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정원, 수로와 같이 자연을 일부 변형시켜 활용한 접이</u> 특징적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물 보호법 Golden Wachau, Heritage Trail 등 관광 상품 개발 전통적 방식의 포도나무 재배 및 포도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을의 가옥과 구조가 확장 지역 커뮤니티와 학자들이 함께하는 심포지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CHTH의 관리 넓은 완충구역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보존 지역 주민 교육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보존회의 보존 활동 및 공동체의 사회·경제활동 관광 상품을 통한 외부인 유입, 귀촌 희망자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 유산들에 비해 좁은 완충구역 <u>결속력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 등 지속가능성</u>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래된 역사적 마을이라는 인식 마을 주민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공동체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사회조직 Kanta를 유지하며 자부심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정체성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장 Dehyar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마을 관리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지역민의 자주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동 및 마을의 특징적 요소로부터 비롯되는 지역 공동체 의식 전통문화, 고향 등 국민적 의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의 지속이 만드는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u> 국가 정서적 인식

2.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전통 마을이 가진 문화경관적 가치를 아산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문화경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의 사례를 등재 신청서와 자문기관 평가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요소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각 유산에서 공통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분류하여 ‘형성 배경’, ‘문화적 특성’, ‘생활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암마을이 가진 문화경관 요소로 역사적·지리적·기후적 배경, 구조적·문화적 특성, 일상적·사회적·경제적 생활방식과 축제 및 관광을 통한 활동을 확인하였다.

해당 요소들이 가진 가치를 해석 및 평가하기 위해 국제 동향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치 평가의 틀을 구성하였다. 문화경관 대상지가 가질 수 있는 가치 평가의 기준은 ‘역사성’, ‘심미성’, ‘지속성’, ‘연계성’, ‘정체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외암마을에 적용하여 시간의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다는 측면과 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역사성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형성 당시와 현대의 미적 기준을 충족하는 심미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리적 요소의 지속성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 공동체가 만드는 생활방식의 지속성이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마을을 구성하는 풍수적 요인과 외암 이간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및 유교·선비 문화는 연계성의 가치를 충족하는 요소이지만, 관련 기록물과 기록물에 등장하는 경관 요소의 보관을 통해 그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문화경관 요소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마을의 고유한 토속 문화는 내부자인 주민의 정체성 의식을 고취시키며, 전통 마을의 특성이 만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서를 대표하여 정체성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2절 종합 결론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 유산의 사례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요소 분류를 한국의 전통 마을에 적용한 데 의의가 있으며, 가치 평가의 틀에서 분류한 지속성, 연계성, 정체성의 가치는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인 OUV로는 전부 설명될 수 없는 문화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화석화된 문화재(property)로서 마을을 분석하기보다 경관 단위의 살아있는 공간 유산으로서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된 유사 유산에 방문하여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여 등재된 이후 현재 상황을 보다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대상지 답사와 관련된 인터뷰에 의존하여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 제언과 향후 과제

현재 외암마을을 비롯한 9개 전통 마을은 모두 국가가 지정한 민속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관리를 받고 있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²⁷⁾’으로 정의되어있는 물리적 요소 중심의 개념으로, 문화경관적 요소를 발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국제적 가치 담론과 비교했을 때 아직 한국에서의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요소에 머물러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문화경관의 요소와 가치로 평가한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토속적 문화 등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맞닿추어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일 것이다.

2023년 현재 ‘자연유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문화재 분류 체계가

27) 「문화재보호법」 제2조

변화할 예정이다. 경관을 다루는 개념인 ‘명승’이 더이상 기념물로 취급되지 않고 자연유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추후 경관과 문화경관적 가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에 문화경관의 요소를 분류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 본 연구가 향후 논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보고서 및 단행본

- 유병립 외(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 계획연구소.
- UNESCO,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문화재청 (역)(2011), 『세계 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 한필원(2011). 『한국의 전통 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2014), 『아산 외암마을』, 대원사. 전자책. <https://www.krpia.co.kr/>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7), 『지나간 시간을 읽다 -민속문화재, 이야기를 읽다』. 문화재청
- UNESCO, *Policy to integr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2020),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 이왕기 외(2020).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이코모스한국위원회.
- 이코모스한국위원회(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 김아연 외(2021).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평』, 한숲.

(2) 학술논문

- 박승자(2001), “수지천 유역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3(1): 85-104.
- 임창복, 한경훈, 김경완(2004), “가로조건에 따른 읍성마을의 좌향 및 배치특

성에 관한 연구: 낙안읍성과 성읍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7): 102-109.

- 성종상, 이은석(2005), “외암리 민속마을의 생태적 맥락과 장소성 연구 -수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 및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79-86.
- 전중환(2006), “민속마을 외암리의 경관 원형과 경관 동학,” 『문화역사지리』, 18(2): 38-56.
- 윤종빈(2009), “『巍巖記』에 나타난巍巖李柬의 생애와 학문,” 『대동철학』, 47: 137-162.
- 이광운(2010),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30: 171-188
- 정동섭(2010), “외암마을의 공간구조에 따른 수공간 이용 특성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23-44.
- 신상섭(2011), “아산 외암마을 토속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문화재』, 44(1): 30-51.
- 이수정(2011),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가치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 44(4): 154-171.
- 이수정(2012),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45(4): 126-139.
- 임의제, 소현수, 이수동, “경상남도 남해안 마을숲의 문화경관 특성 연구 -남해군과 통영시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29-41.
- 최원석(2012),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산(山)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4(1): 27-49.
- 이승희(2014), “문화경관 개념으로 본 윤선도 부용동 정원의 가치,” 『한국경관학회지』, 6(2): 1-11.
- 전중환(2014),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대한지리학회지』, 49(4): 563-584

- 정우락(2014).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177-217.
- 채혜인, 박소현(2015),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회지』, 31(2): 253-260.
- 이제이, 성종상, 손용훈, 김태균(2016), “조선시대 선비들의 행락공간으로서 세검정 일대의 문화경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2): 75-86.
- 김순기, 신상철(2017), “문화경관 세계유산으로서의 벽골제의 가치 및 경관 특성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5: 36-42.
- 김연희, 박인혜(2017), “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전승방안 연구 -외암 민속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2: 137-148.
- 이창훈, 이원호(2017), “아산 외암마을 일원의 변화과정 추적을 통해 본 문화경관상(文化景觀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88-97.
- 정해준(2018), “전통 원림의 세계유산 문화경관적 가치 -분명히 규정된 경관으로서의 보길도 운선도 원림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 16: 14-27.
- 이영경(2019), “월정사 보존지의 유산가치와 문화경관,” 『한국불교학』, 91: 229-258.
- 성종상(2020). “세계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의 가치와 의미 재조명,”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이코모스한국위원회. 43-95
- 박중홍, 류제현(2020), “청산도 구들장논의 비교 분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 세계유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101-114.
- 김지현, 정재용(2020), “장소정체성 개념으로 바라본 광화문광장의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69: 177-188.
- 정광중, 정주연, 김지수, 강성기(2022), “전통 취락경관의 특색-외암마을의 돌 문화 경관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2(2): 90-105.

(3) 학위논문

- 이정훈(2006), 『전통마을 길·마당의 시지각 차폐도 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정겨운(2009), 『한국 전통마을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 외암리, 하회,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훈중(2014), 『한국 전통마을의 배치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아산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조준현(2015),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승희 (2015). 『고산 운선도 원림 권역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가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경희(2016), 『민속마을의 풍수적 입지 연구 -한국의 6대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심주아(2016), 『이코모스 현장의 문화유산 개념 및 보존원칙의 변화와 그 의미 -베니스 현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임진강(2017), 『제주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발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경표(2020), 『민속마을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인식차이』.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4) 웹페이지 및 기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main.do>
- “디지털아산문화대전,” <https://url.kr/rlmp46>
- “한옥기술개발 R&D 아산외암리참판댁,” <https://url.kr/32s4xb>
- “아산외암마을,” <https://www.asan.go.kr/>

- “아산문화재기행,” <https://url.kr/doqctm>
- “UNESCO,” <https://whc.unesco.org/>
- “외암마을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Oeam Village),”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59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풍수 칼럼] 집과 땅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풍수 비책,” <https://brunch.co.kr/@01c796d7826e4f8/26>

[해외문헌]

(1) 보고서 및 단행본

- UNESCO(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 UNESCO(1993),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UNESCO.
- Republic of Austria(2000),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Wachau Cultural Landscape*, UNESCO
- ICOMOS(2000), *Advisory Body Evaluation, Wachau(Austria) No970*, ICOMOS.
- Council of Europe Landscape Convention(2000),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Council of Europe.
- P.J.Fowler(2003),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World Heritage Papers』, UNESCO.
- Ken Taylor(2008), *Landscape and Memory: cultural landscapes, intangible values and some thoughts on Asia*,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Finding the spirit of place – between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 ICOMOS.
- UNESCO Bangkok(2009), *Hoi An Protocols*, UNESCO
-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2009),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Konso Cultural Landscape*, UNESCO

- ICOMOS(2011), Advisory Body Evaluation, Konso(Ethiopia) No1333rev, ICOMOS.
- Nora Mitchell, Mechtild Rossler, Pierre-Marie Tricaud(2009),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Papers』 , UNESCO.
- Luengo, A.(2013). World heritage agricultural landscapes. World Heritage, 69, 6-13, UNESCO.
- Islamic Republic of Iran(2020), WHC Nomination Documen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UNESCO
- ICOMOS(2021), Advisory Body Evaluation,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Islamic Republic of Iran) No 1647, ICOMOS.
- UNESCO(202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 Riedl, Doris, Reinhard Roetzel, Ronald E. Pöpl, and Tobias Sprafke. “Wachau World Heritage Site: A Diverse Riverine Landscape.” Landscapes and Landforms of Austria.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AG, 2022. 163-78. World Geomorphological Landscapes. Web.

(2) 학술논문

- Cari Goetcheus, Nora Mitchell(2014), “The Venice Charter and Cultural Landscapes: Evolution of Heritage Concepts and Conservation Over Time” , 『Change Over Time』 , 4(2): 338-357.

Abstract

Cultural Landscape Values of Traditional Villages through Comparison of World Heritage Cases

- Focusing on Oeam Village -

Yeo, Haer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Beginning with the 197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has been identifying, protecting, and preserving World Heritage that has universal value to mankind. To include the concept of a collaboration between nature and man, UNESCO revise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92 to add 'cultural landscapes', which represent the collaboration between nature and man, as a type of inscription.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trend of being listed, indicates that the target of heritage is expanding from monuments to landscape elements such as indigenous culture and agricultural cultu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ltural landscape of traditional villages, which contain the traces of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s. Among the many traditional villages in Korea, the value of Asan Oeam Village,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alue and is listed on the World Heritage Tentative List, is judged to be unnoticed as a landscape heritage.

The concept of cultural landscape and the flo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were examined by looking at the research history of cultural landscape, which serv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among the previously registered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 heritage cases, heritages with village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Through this, a framework for element analysis to derive the cultural landscape elements of the site was established, and a

framework for value evaluation was construct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value of cultural landscape. According to the two frameworks, the cultural landscape elements of Oeam Village were classified into formation backgrou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and the value corresponding to each element was evaluated by dividing them into historicity, aesthetics, continuity, connectivity, and identity.

The cultural landscape of Oeam Village was forme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feng shui background as the starting point, and structural and architectural features stand out centered on the structure and water system of the village. The lifestyle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current village is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The background and the structure created from it prove the value of the village's historicity and aesthetics, and the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interaction. In particular, indigenous culture such as confucianism, ancestral rites derived from that history supports the connection of interaction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s well as historicity. The effor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utilization of heritag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village are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Oeam Village. As the local people's lifestyle and resident participation ar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Oeam Village, which has strong resident solidarity, is considered to be moving in a desirable direction.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establish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by relying on site surveys and interviews,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by interpreting the unique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of cultural landscapes, such as continuity, connectivity, and identity. It is also significant that it presented a direction in which intangible values are regarded as important factors.

.....

keywords :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 Traditional Village, Oeam Village

Student Number : 2021-28438